INDO-PACIFIC DEFENSE FORUM

44권, 2호, 2019년

지식재산 탈취

중국의 지식재산 도용이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

특집 기사

10 새로운 억제 시대
패권 경쟁의 부활로 분쟁과 평화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다.

18 지식재산 확보
중국이 구매력, 도용, 스파이 기술을 사용하여 기술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24 신장 지구 차별 캠페인
중국의 탄압이 역효과를 일으킬 것이다.

26 다중 영역 작전
눈 앞에 다가온 메가시티

32 비핵화로 가는 험한 길
회의적인 시각 속에서도 북한 비핵화를 여전히 추진 중이다.

36 태평양 설득
주요 강대국과 신흥 강대국들이 남태평양 국가들과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중국의 영향력을 억제하고 있다.

42 조업 관리
남획이 태평양 섬 국가의 생활 방식, 번영은 물론 주권을 위협하고 있다.

46 상호운용성을 위한 리더 개발
뉴질랜드 육군 관점

50 평화 유지
스리랑카가 글로벌 평화유지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육군 참모총장 마헤시 세나나야케 중장과 포럼 인터뷰

54 인도 잠수함 현대화
자체 생산된 스코르펜급 잠수함 함대가 기념식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기사

4 인도 태평양 뷰

5 기고자

6 지역 뉴스
인도 태평양 뉴스.

8 테러 관련 소식
북한인이 해킹 혐의로 기소됐다.

60 오피니언
인도와 인도네시아가 안보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64 세계 지평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사자 보존 성공 및 영국의 인권 TV 채널 출범

65 생각할 거리
홍콩 과학자가 항바이러스제에 돌파구를 마련했다.

66 요모조모
흥미롭고 독특하고 재미있는 뉴스

67 파팅샷
2018년 6월 타이완 군인들이 한쿠앙 훈련에 참가하고 있다.

표지 소개:
중국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 비밀을 훔치고 있다.

포럼 일러스트레이션

독자 여러분께

분쟁 해법을 깊이 있게 다룬 인도 *태평양 디펜스 포럼* 2019년 2분기 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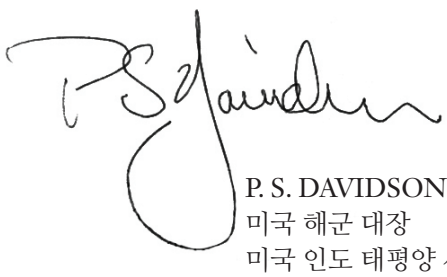
인도 태평양 국가들은 국제 규범, 표준, 법에 따라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여전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동맹국과 파트너국들은 갈등 심화와 재발을 방지하고 재래식 위협이나 비재래식 위협에 관계없이 진화하는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여 지역 안보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포럼 이번 호에서 아서 툴락 전 미국 육군 대령은 재래식 접근법이 하이브리드 전쟁 확산을 막는 데 대체적으로 실패했기 때문에 새로운 억제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중국 인민해방군이 남중국해 해양 지형을 확보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 반도 영토를 차지한 것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습니다. 이들 독재주의 국가는 평화와 위기 사이의 "회색 지대"에서 대리자부터 정치 선전까지 다양한 하이브리드 전술을 사용한 후 군사 자산을 배치하여 영토를 차지했습니다. 툴락 전 대령은 오늘날 작전 및 정보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과제와 앞으로 지역 내 패권 균형에 하이브리드 전쟁이 가진 의미를 논의합니다.

이외에도 이번 호는 하이브리드 전쟁이 지역 안보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는 기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어떻게 세계 최대 경제 스파이국(일종의 하이브리드 전쟁)이 됐는지 그리고 지식 재산, 영업 비밀, 기술 데이터 도용이 어떻게 정치적 적대감을 촉진하는지 알아봅니다. 또한 동맹국과 파트너국이 남태평양에서 중국의 공세와 강압에 맞서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도 집중적으로 알아봅니다. 이번 호는 메가시티에서 다중 영역 작전의 중요성도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호가 분쟁을 예방하는 지역 내 대화를 촉진하기 바라며,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환영합니다. 의견을 *포럼* 스태프 이메일 **ipdf@ipdefenseforum.com**으로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P. S. DAVIDSON
미국 해군 대장
미국 인도 태평양 사령부 사령관

IPD 포럼

분쟁 해결
44권, 2호, 2019년

USINDOPACOM 리더십

PHILIP S. DAVIDSON
미국 해군 대장
사령관

BRYAN P. FENTON
미국 육군 중장
부사령관

MICHAEL A. MINIHAN
미국 공군 소장
참모총장

STEPHEN T. KOEHLER
미국 해군 소장
작전본부장

프로그램 책임자

NATHAN T. DIVELBESS
미국 육군 중령
IPD 포럼 매니저

연락처

IPD 포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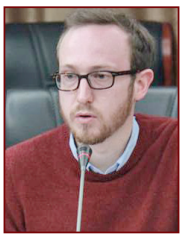
Indo-Pacific Defense FORUM
Program Manager,
HQ USINDOPACOM Box 64013
Camp H.M. Smith, HI 96861 USA

ipdefenseforum.com
이메일:
ipdf@ipdefenseforum.com

인도 태평양 디펜스 포럼은 미국 인도 태평양 사령부가 인도 태평양 지역의 군 관계자들에게 국제적인 포럼을 제공하기 위해 분기별로 발행하는 전문 군사 매거진입니다. 본지에 소개된 의견이 반드시 본 사령부나 다른 미국 정부 기관의 정책 혹은 견해를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한 모든 기사는 *포럼* 스태프가 작성했습니다. 국방장관은 국방부에서 요구되는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데 본지의 발행이 필요하다고 결정했습니다.

ISSN 2333-1593 (인쇄판)
ISSN 2333-1607 (온라인판)

줄카르나인 (RET.) 아서 툴락(ARTHUR TULAK) 전 대령은 조지아 기술 연구소 연구원이며 미국 인도 태평양 사령부 J81 펄시티 지부에서 활동 중이다. 그는 전자전 및 정보 작전 전문가 협회인 올드 크로우 협회 하와이 부지부장이다. 그는 15년 복무 간 정보 작전과 교리 개발 분야에서 활동한 것은 물론 보스니아, 코소보, 아프가니스탄에서 작전 지원 참모 장교로 활약했다. 그는 중앙, 유럽, 인도 태평양 전역의 다양한 육군, 합동, 연합 본부에서 복무했다. 10페이지에 등장



마크 줄리엔(MARC JULIENNE)은 국제 관계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프랑스 파리 국립 동양 언어 및 문명 연구소를 졸업했으며 아시아학과 중국어를 전공했다. 그는 박사 후보로 파리 아시아 센터에서 2년 레지던트 어소시에이트 펠로우 과정 중이다. 그는 중국 안보 정책, 군사 문제, 외교 정책을 중심으로 연구 중이다. 24페이지에 등장

CAPT. 로버트 T 핸드릭슨 (ROBERT T. HENDRICKSON) 대령은 미국 해안 경비대 제14지구 대응사단 사단장으로 복무 중이며 태평양 중서부에서 일일 수색 및 구조, 법 집행, 해양 오염 대응, 국토 안보 작전을 총괄하고 있다. 37년 동안 미국 해안 경비대로 활약하며 다수의 훈장을 받은 그는 국립 수색 및 구조 학교 교장, 미국 해안 경비대 수산법 집행 프로그램 부단장, 국립 해양 및 대기 관리국 연락 담당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42페이지에 등장

MAJ. GEN. 뉴질랜드 육군 참모총장 존 R 보스웰 (JOHN R. BOSWELL) 소장은 1984년 육군에 입대하여 광범위한 국제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 앙골라, 동티모르, 중동 유엔 작전에 참가했고 2010년 4월 아프가니스탄 바미안에서 뉴질랜드 재건팀 선임 장교 겸 사령관으로 근무했다. 보스웰 소장은 이곳에서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 훈장을 받았다. 최근에는 전략 관리 담당관(육군, 2010년 ~ 2012년), 육군 참모총장 대리(2012년 3월 ~ 6월), 합동군 본부 최고 계획 장교 (2012년 ~ 2014년), 전략 결의 및 교전 부참모(2016년 ~ 2018년 2월, 인도 국방대학교 졸업 후)로 활동했다. 46페이지에 등장

사로시 바나(SAROSH BANA)는 인도 뭄바이 *비즈니스 인디아*의 주필이다. 국방 및 안보, 사이버 보안, 우주, 에너지, 환경, 외교, 식량 및 농업, 해운 및 항만, 도시 및 농촌 개발에 대해 광범위하게 기고하고 있다. 하와이 동서센터의 제퍼슨 펠로우이자 동서센터협회 이사회의 재무/총무 담당자다. 54페이지에 등장

토론에 참여해주십시오.

귀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인도 태평양 디펜스 포럼*은 인도 태평양 지역의 군사 및 안보 인력을 대상으로 합니다. 미국 인도 태평양 사령부가 발행하는 분기별 잡지로서 테러 방지부터 국제 협력 및 자연 재해까지 지역의 안보 활동에 영향을 주는 주제에 대한 "고품".격 심층 자료를 제공합니다.

*포럼*은 사려 깊은 토론을 유발하고 건전한 아이디어 교환을 장려합니다. 기사, 사진, 토론 주제, 기타 의견을 온라인으로 보내주십시오.

Program Manager
Indo-Pacific Defense FORUM
HQ USINDOPACOM, Box 64013
Camp H.M. Smith, HI
96861-4013 US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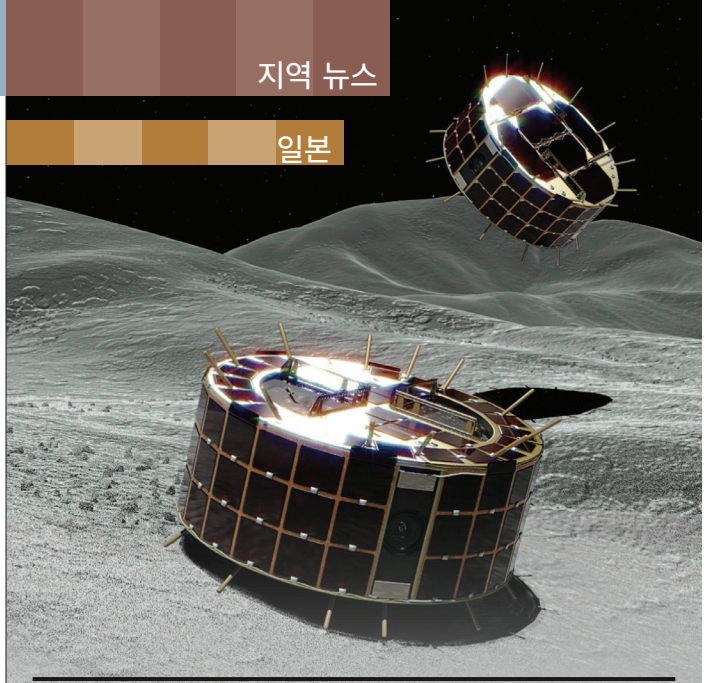
*인도 태평양 디펜스 포럼*은 다양한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며 매일 새로운 기사가 **www.ipdefenseforum.com에 게시됩니다.** 방문하시면 다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전용 콘텐츠 액세스
- 이전 호 검색
- 피드백 보내기
- 구독 신청
- 기사 제보 안내

FORUM

많은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 탐구

일본



소행성 탐험 로봇

2018년 9월 일본 우주선이 태양계의 기원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는 임무를 띤 로봇을 소행성 위로 발사했다.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는 무인 우주선 하야부사2호에서 소행성 류구로 미네르바 II 1 로봇 두 대를 착륙시켰다고 발표했다. 우주선은 2018년 6월 지구에서 약 2억 8000만 킬로미터 떨어진 소행성 근처에 도착했다.

하야부사2호는 소행성에서 55미터까지 접근한 후 로봇을 내리고, 1분간 기다린 후, 표면에서 약 20킬로미터 지점의 대기 위치로 돌아왔다.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는 성공적으로 착륙시켰다고 발표했다.

하야부사 프로젝트 팀 대변인 다카시 구보다(Takashi Kubota)는 류구에 밤이 되면서 태양광 로봇의 전원이 급격히 감소했으며 이는 로봇이 소행성에 안착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프로젝트 관리자 유이치 츠다(Yuichi Tsuda)는 "매우 희망적이다"며 "어떤 사진을 보게 될지 흥분된다. 류구 표면에서 본 우주 풍경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쿠키 캔 크기 정도의 로봇은 소행성을 촬영하고 나중에 더 큰 로봇과 착륙선이 도착할 때까지 표면 온도를 측정할 것이다. 소행성 중력이 매우 약해 회전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로봇은 한 번에 최대 15미터까지 "점프"하여 이동한다.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는 로봇의 태양광 패널과 전원이 작동하는 한 계속 점프할 수 있다고 밝혔다.

AP 통신

인도네시아

재해 대응 예산 두 배 증액

2018년 일련의 대규모 자연재해로 인도네시아 세 지역이 황폐화된 후 인도네시아가 2019년 재해 대응 예산을 15조 루피(미화 10억 6000만 달러)로 두 배 이상 증액할 것이라고 관계자가 밝혔다.

2018년 쓰나미와 지진으로 술라웨시, 롬복, 웨스트 자바, 수마트라섬에서 3000여 명이 목숨을 잃으며 인도네시아는 지난 10년 내 최악의 한 해를 보냈다.

인도네시아는 지진 활동이 왕성한 태평양 불의 고리 위에 있어 지진, 화산 폭발, 쓰나미는 물론 산사태, 홍수, 산불 같은 국지성 재해가 자주 발생한다.

누프란사 위라 삭티(Nufransa Wira Sakti) 재무부 대변인은 5조 루피를 재해 및 재건에 할당하고 10조 루피를 재해 대응 예산에 편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코 위도도(Joko Widodo) 대통령은 재해 교육 및 대응에 예산을 추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19년 첫 내각 회의에서 "재해가 일어나기 쉬운 지리적 조건 때문에 어떠한 자연재해도 준비하고, 대응 태세를 갖추고, 경계하고, 회복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도도 대통령은 또한 재해 준비를 국립 교육 과정에 포함하고 전국 곳곳에 설치된 낡은 쓰나미 조기 경보 시스템을 새것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8년에 재무부는 2019년에 새로운 전략을 출범하여 "대재해 채권" 판매도 포함할 수 있는 재해 복구 자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 정부는 재해에 대비해 국가 자산을 보험에 가입한 후 재해 위험 금융 수단을 만들어 피해 지역에 제공할 수 있다.

로이터

인도

AFP/GETTY IMAGES

거대 동상

2018년 10월 말 인도가 높이 182미터의 세계 최대 동상을 공개했다. 동상의 주인공은 인도 독립 영웅이다.

공군 전투기가 비행하고, 헬리콥터가 동상 위로 꽃을 뿌리고, 인도 국기를 상징하는 녹색, 주황색, 백색의 불꽃이 터지는 가운데 진행된 사르다르 발라브바이 파텔(Sardar Vallabhbhai Patel) 동상 제막식에서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는 동상을 공식적으로 공개했다.

모디 총리는 "오늘은 인도 역사를 기념하는 날이다"며 사르다르 파텔이 "전략적 사고"로 1947년 독립 후 분열된 인도를 단결시켰고 "통합의 상"이라 명명된 동상이 "엔지니어링과 기술 능력을 상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299억 루피(미화 4억 달러)를 들여 완공하는 데 거의 4년이 걸린 이 동상은 콘크리트와 철근 약 10만 톤으로 제작됐다.

사르다르 파텔의 이름은 1947년 이후 인도 정치를 장악한 네루 간디 가문으로 인해 크게 가려져 있었다 모디 총리에게 영감을 받은 민족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영웅을 다시 부각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이 동상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128미터 높이의 중국 중원대불보다 훨씬 크다.

인도 당국은 이 동상 덕분에 가장 가까운 도시 바도도라에서 약 100 킬로미터 떨어진 오지 구자라트에 매일 관람객 1만 5000명이 찾아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AFP 통신

개헌 논의

신조

아베(Shinzo Abe) 일본 총리가 집권 자민당 총재로서 2018년 9월 재선에서 압승을 거두며 최대 3년 더 국가 수장직을 역임하고 자위대의 작전 권한을 확대할 수 있는 개헌을 추진할 발판을 마련했다.

재선 압승으로 미국이 제정한 일본의 평화 헌법을 개헌하려는 아베 총리의 오랜 바람에 힘이 실릴 수 있으나 여전히 장애물은 높고 정치적 위험도 따를 수 있다. 아베 총리는 재선 승리 연설에서 "개헌을 추진해야 할 때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마지막 임기 동안 정치적 목표를 추진하여 일본의 전후 외교를 "통합"하고 국가 평화를 보장할 각오가 돼있다고 말했다. 그는 "함께 새 일본을 만들자"고 말했다.

일본

GETTY IMAGES

2012년 12월부터 총리를 지낸 아베 총리는 자민당의 지배를 강화했고 2021년 8월까지 일본 최장기 집권 총리가 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는 일본의 고령화 및 인구 감소, 봄 황위 계승, 이미 두 차례 연기한 소비세 10퍼센트 인상을 비롯한 여러 정치적 과제를 안고 있다.

국제 사회가 북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아베 총리는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 수십 년 된 납북 일본인 문제를 비롯하여 분쟁을 해결하려 한다. 그는 지역에서 공세를 강화하는 중국 활동에도 직면하고 있다. AP 통신

소니 해킹 및 워너크라이 바이러스 전파

북한인 기소

기사 및 사진: AP 통신

2018년 9월 연방 검찰이 북한 정부를 위해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를 해킹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워너크라이 랜섬웨어로 150개 국가의 컴퓨터를 감염시키고 영국 의료 시스템 일부를 마비시킨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수년의 조사 후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이 공개한 기소 자료에 따르면 북한인으로 여겨진 박진혁은 방글라데시 은행에서 미화 8100만 달러를 훔치는 것을 비롯하여 일련의 해킹을 감행했다. 미국은 그가 북한이 후원하는 해킹 조직을 위해 일하고 있었다고 보고 있다.

과거 미국은 최고 경영자들의 당황스러운 이메일뿐만 아니라 사회 보장 번호, 금융 기록, 급여 정보를 비롯한 민감한 직원 개인 정보의 대량 유출로 이어진 2014년 소니 해킹 사건의 배후가 북한이라고 발표했다. 해킹으로 *애니*를 비롯한 소니의 미공개 영화와 당시 상영 중이던 브래드 피트 주연의 *퓨리*가 유출됐고 소니에 수천만 달러의 피해가 발생했다.

미국 연방수사국은 맬웨어로 전 세계 병원, 공장, 정부 기관, 은행, 기타 기업의 컴퓨터 수십만 대에 저장된 데이터를 훼손한 작년 워너크라이 사이버 공격도 북한의 소행이라고 오랫동안 의심했다.

로스앤젤레스 수석 검사보 트레이시 윌키슨(Tracy Wilkison)은 "이 사건에 명시된 범죄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며 "북한이 후원하는 해킹이 미국과 영국에서 언론의 자유를 무너트리려 했다. 전 세계 은행들을 강탈했고 맬웨어를 무차별적으로 만들어 컴퓨터를 마비시키고 의료 서비스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2018년 6월 8일 연방 검찰은 비공개로 기소했으며 이날은 미국과 북한의 수십 년 적대 관계를 종식하기 위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위원장의 역사적인 만남이 개최되기 4일 전이었다. 연방 검찰은 다양한 이유로 기소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북미 정상 회담에 차질을 주지 않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윌키슨 검사보는 "정상 회담과 비핵화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미국 관계자들은 소니 해킹이 김 위원장을 암살한다는 세스 로건(Seth Rogen)과 제임스 프랭코(James Franco) 주연의 코미디 영화 더 인터뷰에 대한 보복이라고 생각한다. 소니는 영화 관객에 대한 위협 때문에 영화의 극장 개봉을 취소했다. 소니는 유튜브와 기타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영화를 공개했다.

관계자들은 해커들이 록히드 마틴을 비롯한 여러 미국 방위 산업체와 기타 한국 방위 산업체에 스피어피싱(Spear-Phishing) 이메일을 보낼 때 소니 해킹과 동일한 가명과 계정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해커들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여러 차례 해킹을 통해 전 세계 은행에서 미화 10억 달러 이상을 훔치려 했다. 조사는 계속되고 있다.

관계자들은 해커들이 학계와 발전소는 물론 기술 및 가상 화폐 산업도 노렸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수사국 특수 요원 제니퍼 분(Jennifer Boone)은 "이 사건은 기업, 소기업 또는 대기업에 관계없이 모두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워터링 홀(Watering Hole)과 백 도어(Back Door) 같이 기소장에 사용된 용어가 위협적으로 들리지 않을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은 컴퓨터 시스템과 국민의 삶을 혼란에 빠트리는 악의적인 사이버 기법을 설명하는 용어다"고 말했다.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은 워너크라이 프로그램 중 일부가 소니 해킹 배후로 여겨지는 라자루스 그룹으로 알려진 해커 집단이 과거 배포한 맬웨어와 동일한 코드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기소장에 따르면 박진혁은 중국 다롄에서 활동하는 조선 엑스포라는 조직의 프로그래머 팀 소속이며 미국 연방수사국은 조선 엑스포를 "정부 유령 회사"라고 설명한다.

북한에 등록된 조선 엑스포 웹사이트에 따르면 조선 엑스포는 2002년 설립된 북한 "최초 인터넷 기업"이다.

조선 엑스포는 2015년 버전 웹사이트에서 주 사업 분야가 게임, 도박, 전자 결제, 이미지 인식 소프트웨어라고 밝혔다. 조선 엑스포는 많은 면에서 선구적인 정보 기술 인재와 고객 만족을 자랑하는 일반적인 기술 기업처럼 보였다. 2016년 7월 인터넷 보관 기록에 따르면 조선 엑스포는 홈페이지에서 북한을 참조한 내용을 지웠다. 이후 조선 엑스포 사이트는 인터넷에서 사라졌다.

이번 사건은 미국 법무부가 북한인으로 추정되는 해커를 기소한 첫 사례다. 최근 법무부는 미국 기업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후원한 다른 나라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기 위해 중국, 이란, 러시아 출신 해커를 기소했다.

예를 들어 오바마(Obama) 정부는 2014년 미국 기업에 대한 일련의 해킹 혐의로 중국군 해커 다섯 명을 기소했다. 트럼프 대통령 아래에서도 비슷한 체포 사례가 이어졌다. 2018년 12월 미국은 중국인 해커 주후아(Zhu Hua)와 샹실롱(Shang Shilong)을 컴퓨터 침입, 금융 사기, 가중 신분 도용 공모 혐의로 기소한 내용을 공개했다. 이들은 어드밴스드 퍼시스턴트 스레트 10으로 알려진 해킹 그룹 소속이다.

2018년 9월 미국 정부는 북한 정부를 위해 활동하는 컴퓨터 프로그래머 박진혁을 일련의 치명적인 사이버 공격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했다.

이보다 두 달 전 중국 정보기관 요원과 이들을 위해 일하는 해커들이 민간 제트 엔진 정보를 훔치는 것을 비롯한 산업 스파이 활동으로 기소됐다. 기소장에 중국 국가안전부 산하 난징 해외 정보부 관계자 두 명과 터보팬 엔진 기술을 훔치려 한 혐의로 피고인 여섯 명이 지목됐다.

이란도 연루됐다. 2018년 3월 미국은 미국 기업과 정부 기관 수십 개는 물론 미국 및 해외 대학교 수백 개의 지식 재산을 노린 이란 해커 네트워크를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소니 해킹의 경우 재무부는 박진혁을 제재 목록에 추가해 미국에서 활동하는 은행이 박진혁이나 조선 엑스포에 계좌를 제공하지 못하게 막았다. 나이가 알려지지 않은 박진혁은 최대 25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컴퓨터 및 금융 사기 두 건으로 기소됐다.

車輌走行中は全てのチェーンを掛けること

도쿄 동쪽 지바현 후나바시 나라시노 훈련장에서 일본 육상자위대 대원이 지대공 패트리어트 첨단 역량-3 미사일 요격기 발사대 차량을 지키고 있다. AP 통신

새로운 억제 시대

패권 경쟁의 부활로 분쟁과 평화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다.

아서 툴락(ARTHUR TULAK) 전 대령/미국 육군

오늘날 세계는 전쟁 중은 아니지만 진정한 평화 상태에 있지도 않다. 21세기 안보 환경의 복잡성과 범위를 시각화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외교 협회의 온라인 글로벌 분쟁 추적기(14페이지)를 방문해보자. 추적기에 따르면 25개 분쟁이 진행 중이며 이 중에서 여섯 개는 미국의 전략적 이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고 여섯 개는 영토 분쟁이다. 여기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다른 나라의 영유권이나 해양 권리를 주장하는 분쟁도 있지만 미해결 분쟁이 모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현존하고 잠재적인 분쟁이 더 많다.

2017년 12월 발행된 미국국가안보전략과 2018년 3월 발행된 국가방위전략은 국가 간 경쟁 및 분쟁에 대한 국가 초점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억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새로운 접근법에서 현재 세계 질서를 훼손하고 뒤집으려는 강대국의 공격적인 행동과 정책에 대응하는 최우선 도구로 억제가 돌아오고 있다.

억제에 대한 재관심은 안보 환경 악화와 궤를 같이한다. 이에 대해 미국 육군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예상되는 적이 현대적이고 역량 있는 전투 시스템 배치를 확대하면서 내부 라인의 장점을 활용하여 활동하는 "복합 세계"로 묘사한다. 북대서양조약기구가 부활하는 수정주의 러시아에 대응하고 있는 유럽에서도 북대서양조약기구가 전쟁 방지를 위한 억제 역할을 재검토하면서 억제에 대한 관심이 다시 일어나고 있다. 인도 태평양에서 미국과 동맹국 및 파트너국은 중국이 이웃 국가에 피해를 주면서 동쪽으로 확장하고 군사

수단으로 영공과 해역에 대한 주장을 확대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2017년 국가안보전략은 미국의 잠재적인 적을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순으로 나열하고 있으며 이들은 모두 미국 전략, 작전, 전역 접근, 전투 개념, 무기 체계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군사 역량을 크게 성장시켰다. 마찬가지로 미국 국무부 및 국제개발기구 합동 전략 계획도 중국이 규칙 기반 국제 질서를 위협한다고 암시하고 있다.

미국 육군 교리에 따르면 미국은 비슷한 수준의 적을 상대하고 있으며 이 적은 동맹에 균열을 일으키고 무장 분쟁 임계점에 못 미치게 동맹국과 안보 파트너국을 무찌르기 위해 "평화와 전쟁 사이의 구분을 흐리는 작전을 수행하여 전통적인 억제에 도전하는" 하이브리드 전쟁을 활용한다.

2017년 국가안보전략은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안보와 번영을 침식하려 하면서 미국의 패권, 영향력, 국익에 도전하고 있다고 일관되게 명시하고 있다. 국가안보전략은 또한 양국을 "수정주의 강국"으로 규정하고 특히 중국을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을 대체하려는 국가"로 지정하고 있다. 2018년 3월 발행된 미국 합동참모본부 통합 캠페인용 합동 개념에 따르면 양국은 평시 경쟁에 하이브리드 전쟁을 사용하여 직접 군사 대응을 일으키고 잠재적으로 군사 분쟁을 확대할 수 있는 임계점 미만 군사 목표를 달성하려는 공통점이 있다. 랜드사 분석가 마이클 마자르(Michael Mazarr)는 "미국의 잠재적 적이 꾸준히 미국의 역량을 따라잡고 공격적으로 영토를 확보하려 함에 따라 "실제로 전면전이 발생할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주장했다.

하이브리드 전쟁

2015년 발행된 미국 국가 군사전략에 하이브리드 전쟁이 처음 언급됐다. 하이브리드 전쟁은 군사, 준군사, 용병, 비군사 조직이 의도적인 활동에 재래식, 비재래식, 사법 조직 및 범죄 단체, 정보 전쟁, 언론 전쟁은 물론 테러리스트 수단 및 방법을 혼합하여 영토 통제 또는 정복을 비롯한 전통적인 군사 목표를 달성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하이브리드 전쟁은 국가 목표와 공식 개입의 모호성을 증가시켜 불확실성을 만들고 타당한 거부권을 제공하는 것을 추구한다. 하이브리드 전쟁은 또한 적절한 대응 방법에 대한 적의 의사 결정을 복잡하게 만들고 효과적인 대응 조율을 지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하이브리드 전쟁을 실행하는 국가는 대규모 군사 분쟁을 피하는 식으로 작전을 수행한다. 짐 매티스(Jim Mattis) 전 국방부 장관이 지적한 것처럼 오늘날 수정주의 강국과 불량 정권은 "부패, 약탈적인

2018년 8월 29일 우크라이나 키예프 러시아 대사관 앞에서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진행 중인 전쟁 중 전사한 우크라이나 군인을 상징하는 십자가를 들고 서있다. AP 통신

2018년 4월 이웃 국가의 심기를 건드리며 동중국해에서 실시한 훈련 중 중국이 최초로 도입한 항공모함 랴오닝호에 **J15** 전투기가 탑재되어 있다. AFP 통신

Дятлов
Сергій
Володимирович

118
111
119
122

경제 관행, 정치 선동, 정치적 전복, 대리자, 군대 위협 또는 사용" 같은 하이브리드 전쟁 기법을 사용하여 지상의 현실을 바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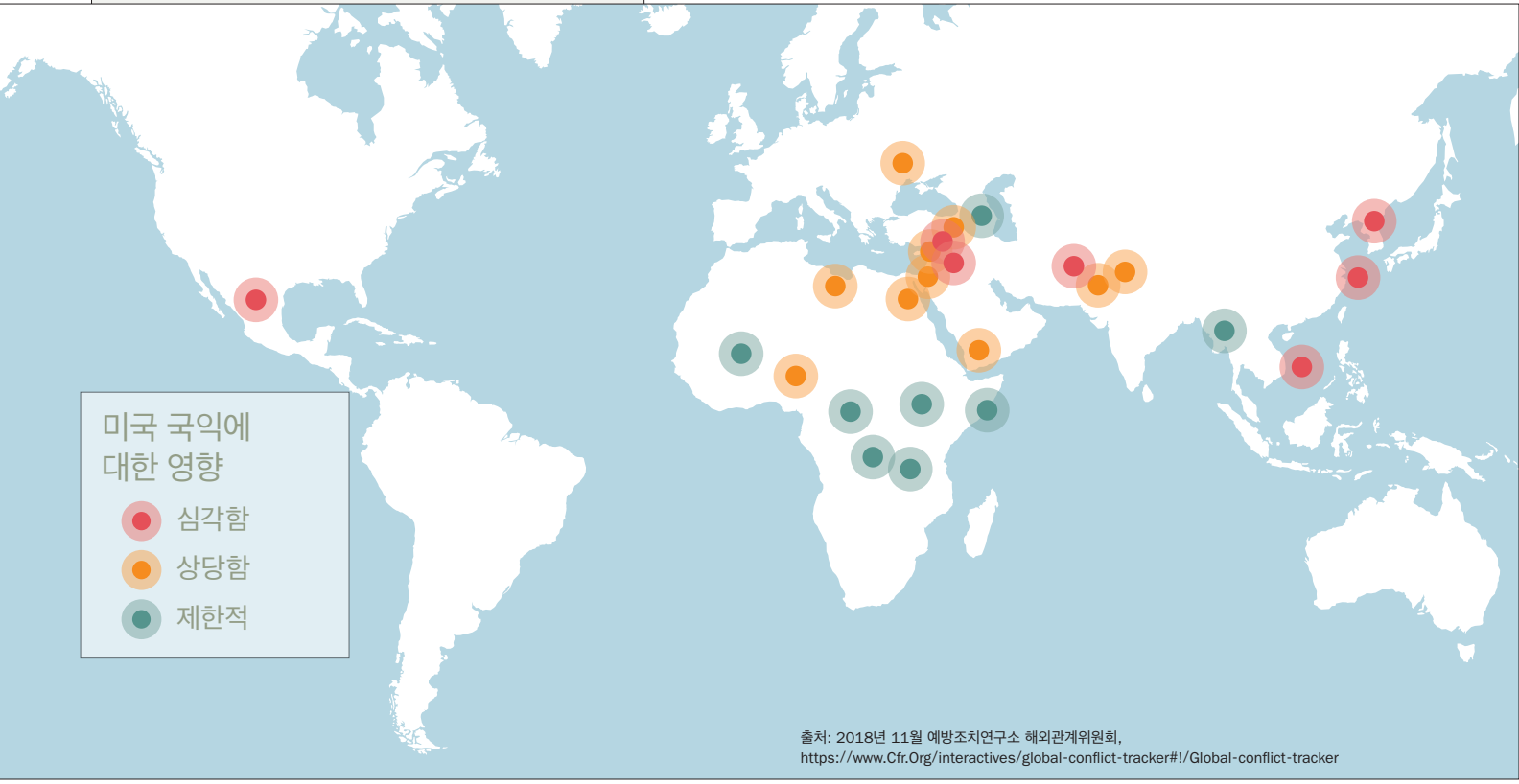
중국과 러시아가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전쟁은 정보 전쟁, 전복, 강압, 비재래식 전쟁이 뒷받침하는 군사, 준군사, 비군사 조직과 함께 대리자를 조합하여 전통적인 억제 노력을 방해하고 회피한다. 미국 통합 캠페인용 합동 개념은 미국에 도전하는 국가 간 경쟁이 끈질기게 계속될 것이며 적이 전략적 목표를 추구하는 데 앞으로도 강압과 하이브리드 전쟁 기법을 사용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이제 독재 정권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유럽과 태평양 전역에서 동시에 군사 수단을 통해 영토 정복을 모색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준설 선단을 사용하여 중국 해안에서 매우 멀리 떨어진 아세안 국가의 배타적 경제 수역 내 해양 지형에 인공섬을 만들었다. 중국은 하이브리드 전쟁으로 인공섬을 확보한 후 대륙 간 전략 폭격기를 수용할 수 있는 비행장을 만들고, 전투기 격납고, 대공 및 대함 미사일 등의 장비를 설치했다. 이러한 전쟁의 가장 대표적인 예 중 하나는 스카버러 사주로서 필리핀 수도에서 불과 354킬로미터 떨어져 있지만 가장 가까운 중국 해안에서 2,658킬로미터 떨어져 있다. 한때 필리핀 어부들의 주요 어장이었던 이 해양 지형은 현재 중국 인민해방군의 하위 조직인 인민무력부 해양민병대와 인민무장 경찰 해안경비대가 순찰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파라셀 제도와 남중국해 기타 기지를 광범위하게 군사화하고 지역 내 긴장을 고조시켰다.

유럽에서 러시아는 2014년에 하이브리드 전쟁으로 우크라이나 크림 반도를 점령하고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반란을 일으켜 지원했다. 여기서 러시아는 정교한 전자전 무기, 조준 및 정찰 지원용 무인 항공기, 현대 전차는 물론 첨단 대공 미사일 시스템도 배치했다. 2014년 러시아 군인들은 분리주의자로 위장하고 이들 미사일 시스템을 운영하여 말레이시아 항공 17편을 격추시키고 민간인 298명을 사살하는 데 성공했다.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는 러시아가 하이브리드 전쟁을 새로운 무대로 옮기며 시리아에서 용병을 사용하여 미군에 지상 공격을 감행했고 미국 항공기에 대한 전자전 공격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소개한 하이브리드 전쟁 사례에서 특히

글로벌 분쟁 추적기



출처: 2018년 11월 예방조치연구소 해외관계위원회,
https://www.Cfr.Org/interactives/global-conflict-tracker#!/Global-conflict-tracker

우려되는 점은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 작전에 하이브리드 전쟁을 사용하여 기반을 확보한 후 방금 설명한 정교한 군사 역량을 배치하여 영토를 점령하고 유지한다는 것이다. 이후 양국은 위기 시 미군 배치를 지연시키고 교란하는 다면 전략을 사용하면서 활동 범위에 전투력을 투사하고 반 접근 지역 거부(A2/AD) 역량으로 전투 공간을 확장한다.

적이 이러한 방법으로 무장 분쟁 시 전장 구조를 미래 전투에 유리하게 바꾸며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은밀히 영토를 확보함에 따라 하이브리드 전쟁이 새로운 방식으로 재래식 억제 개념에 도전하고 있다.

회색 지대

앞선 사례에서 미국이 이념적 차이에 대해 외교 관계를 깨지 않고 지속적이고 명백한 군사 활동 없이 진행하는 새로운 분쟁에 중국과 러시아와 함께 얽혀있다는 것이 분명하다. 무장 분쟁을 억제하기 위한 전통적인 재래식 억제는 중국과 러시아가 성공적으로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전쟁을 억제하는 데 전반적으로 실패했다.

억제 전략 실패는 경쟁국이 하이브리드 전쟁으로 영토를 확보하여 전투 공간을 통제한 후 꾸준한 정보 캠페인으로 미국 동맹과 안보 파트너십의 강점과 결속력을 공격하여 진입 거부용 무기 시스템을 배치하고 A2/AD 위협을 실행하는 과정이 반복되는 것과 같다. 미국과 동맹국은 억제를 통해 이러한 순환 과정을 방해해야 하며 경쟁(평시) 단계에서 그러한 노력을 수립해야 한다. 새로운 미국 국가안보전략은 이를 명시하고 "냉전 시대보다 오늘날 억제를 달성하기 매우 복잡하다"고 강조한다.

새로운 21세기 안보 환경은 "억제가 도전받는"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며 여기서 미국 육군과 해병대는 "적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이 사용하는 분쟁 임계점 미만 활동과 미국과 동맹국이 대응하기 전에 공격적인 활동을 취하고 신속히 이득을 통합하는 적의 잠재력에 의해 시험을 받는 미국 재래식 억제의 효과"로 조건을 정의한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국가는 하이브리드 군대 활동의 책임과 복잡성을 피하면서 동시에 하이브리드 수단 및 방법으로 기회를 이용하기 때문에 억제가 도전받는 개념은 전복, 정보 전쟁, 하이브리드 및 비재래식 전쟁의 재래식 억제에 대한 영향을 강조한다.

미국의 대응 옵션

브루킹스 연구소의 분석가들이 설명하듯이 전통적인 억제 개념은 간단하다. "잠재적인 적을 설득하여 적이 하려는 행동의 위험과 비용이 적이 달성하려는 이득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알려라." 랜드사의 마자르는 억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이것이 직접적이거나 확장적이고 일반적이거나 즉각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직접 억제는 적이 미국, 영토, 재산을 공격하는 것을 막는 노력인 반면 확장 억제는 미국 동맹국과 파트너국에 대한 공격을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확장 억제는 직접 억제보다 훨씬 힘들며 역량 있는 군이 신뢰할 수 있는 전투력을 투사하여 위협을 받은 동맹국이나 파트너국을 강화하는 것이다. 한국전과 걸프전처럼 미국의 확장 억제가 실패하면 값비싼 전쟁으로 이어졌다. 마자르에 따르면 일반 억제는 경쟁 단계나 비위기 상황에서 지속적인 노력이다. 반면 즉각 억제는 위기 단계로 간주될 수 있는 임박한 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단기 긴급 노력이다. 군대와 역량을 전진 배치하고 경쟁 단계에서 일반 억제를 실시하는 것은 위기 시 대응하여 즉각 억지를 제공하는 훈련되고 준비된 군대를 제공하는 것이다.

2017년 미국 하원 군사 위원회에서 랜드사 선임 정치 과학자 크리스토퍼 치브비스(Christopher Chivvis) 박사는 하이브리드 전쟁 억제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교훈을 얻었다고 증언했다. 첫째, 군사력만으로 하이브리드 전쟁 전략을 억제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효과적인 억제를 위해 외교와 해외 원조 같은 비군사적 노력과 역량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둘째, 단순히 사고 지역에 군대를 배치함으로써 하이브리드 전쟁 행위에 대응하는 것은 군대를 빠르게 배치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충분하지 않다. 적은 "레이더에 감지되지 않게" 행동을 전개하여 아군이 영향력을 행사하기 전에 목표 달성을 위한 미국과 동맹국의 의사 결정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혼란에 빠트리기 때문이다.

셋째, 하이브리드 전쟁 전략은 항상 진행 중이고, 전투 공간에 분산되고, 행동의 진폭을 조절하고, 현재 "경쟁 단계"로 알려진 평화와 위기 사이의 회색 지대에서 기회를 활용하고, 신속한 군사적 대응이 필요한 위기로 인정되는 군사력을 사용한다.

통합 캠페인용 합동 개념은 "임계점 미만 무장 분쟁 경쟁이 확전과 억제에 대해 다른 사고방식을 요구하고" 경쟁 단계에서 군사 작전을 위한 세 가지 프레임워크, 즉 경쟁, 반격, 개선을 제공한다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오늘날 사이버 공격 효과를 방어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하지만 억제는 대상 행위자의 행동을 형성하고 모든 형태의 사이버 공격을 방지하는 것보다 특정 임계점 이상의 개별 행동이나 상위 캠페인의 일환인 행동을 억제하는 데 집중해야 하며 이것은 가능하다.

하이브리드 전쟁과 A2/AD가 특징인 복합 세계에서 억제는 이러한 프레임워크에서 효과를 달성하도록 설계된 군사 작전과 활동을 경쟁 단계에서 수행하여 달성할 수 있다. 경쟁자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막고

전반적인 전략적 입지를 개선하고, 적이 추가 이익을 달성하지 못하게 막고, 위험을 완화하면서 적의 행동이 최선의 전략적 결과(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대응하는 것이다.

경쟁 단계에서 예방 활동은 재래식 군대를 사용하여 미국의 동맹국과 파트너국이 보유한 재래식 및 비정규 역량을 강화하고 적이 통제하려는 지역이나 공간에서 작전으로 달성할 수 있다. 미국 육군 교육사령부는 이러한 접근법을 "적이 부정할 수 있는 공간을 경쟁 공간으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고 작전 및 전략적 거리에서 기동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정적인 전역 전투태세 모델만으로는 하이브리드 전쟁을 억제하는 데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복합 환경에서 적의 행동에 대응하기 위한 억제에 관찰 가능한 행동이 필요하다. 공격을 물리치는 데 필요한 것은 하이브리드 전쟁을 사용하는 작전 접근법을 실현하는 적의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것이다.

힘든 과제

미국과 동맹국 및 파트너국이 적의 진격을 막으려면 단순히 군사력과 역량을 과시하는 것을 넘어 하이브리드 전쟁에 맞서야 한다. 적이 통제 중이거나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영역을 경쟁 공간으로 전환하여 적의 진격을 차단해야 한다. 적이 하이브리드 전쟁을 전개하거나 무장 분쟁을 시작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복합적이고 정교한 활동으로서 억제

현대의 전통적인 억제 개념은 독일과 한국 국경에 형성된 냉전 전선의 "동결 분쟁"에 잘 드러나있다. 2008년 랜드사 보고서는 억제가 미국 국가 안보 및 국방 전략에 다시 한 번 중요하게 등장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동급/비슷한 수준의 경쟁국, 지역 패권국, 비국가 행위자에 대한 효과적인 억제를 개발하기 위해 냉전 억제 논리를 이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러한 동결 분쟁의 특징은 근접 교전, 심층 교전, 후방 교전의 세 가지 잘 인정된 전장 구조 내에서 전투할 준비가 된 재래식 군대를 전방 배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전술, 전역, 전략 핵 전력이 뒷받침하는 재래식 군대가 적군을 억제한다.

북대서양조약기구와 바르샤바조약기구 군대의 광범위한 전투 공간은 북쪽 발트해와 남쪽 지중해와 경계를 이루고, 집단군 영역으로 조직되고, 철의 장막으로 분리됐다. 전방 배치 군대는 경보 태세를 갖추고 미리 배치된 전쟁 물자 지원을 받으며 연례 훈련을 통해 전쟁 계획을 훈련하고 즉각 준비 태세를 과시했다. 이것은 북한군을 상대로 비무장지대에 미군과 한국군을 배치하고 있는 유엔과 연합사의 모델이기도 하다. 이러한 냉전 전장은 전선에 비경쟁 공간이 부족하여 기동 공간이 거의 없는 인접하고, 잘 정의되고, 대부분 제한된 전투 공간 패턴에 맞는다. 두 경우 모두 국경은 "전진 방어" 태세의 첫 번째 방어선이었다.

이러한 동결 분쟁의 냉전 전장은 전선에서 어떠한 움직임도 없으며 유럽에서 냉전이 끝날 때까지 정적인 상태를 유지했고 현재 한반도에서도 고정되어 있다. 경쟁 공간은 우발적 교전, 주 전장 근처 시위,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대리전으로 채워졌다. 이에 비해 21세기 안보 환경의 전선은 유동적이다. 국경을 비정규 하이브리드 전쟁 수단 및 방법으로 바꾼 후 재래식 군대와 반 접근 지역 거부(A2/AD) 역량으로 확보하고 방어하기 때문이다.

첫 번째 냉전이 끝나지 않은 한반도의 비무장지대를 제외하고 현재 인도 태평양 전투 공간은 서로 적대적인 군대가 매우 멀리 떨어져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이들 군대 사이의 전투 또는 경쟁 공간 대부분은 미국 해군이 실시하는 항행의 자유 작전과 영유권을 뒷받침하기 위해 물리적 통제력을 사용하는 국가의 영유권 확보 노력이 보여주듯이 경쟁 상황에 있다. 이러한 환경은 자체 하이브리드 전쟁 규칙에 따라 활동하는 적에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

억제하기 위해 미국과 동맹국 및 파트너국은 평시 경쟁 단계 중 적의 시스템을 무너트려야 한다.

러시아 육군 참모총장 발레리 게라시모프(Valery Gerasimov) 대장에 따르면 러시아는 현재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과 영구 대치 상태에 있다. 러시아의 전형적인 공세인 게라시모프 독트린은 최근 사건에서 드러났으며 2018년 11월 26일 일어난 이 사건에서 아조프해와 흑해를 가르는 경쟁 지역인 케르치해협을 평화롭게 통과 중이던 우크라이나 해군 함정 세 척을 러시아 해안 경비대 함정이 충돌하고, 사격하고, 승선하고, 나포했다. AP 통신은 러시아 해안 경비대 함정이 비대칭적 무력으로 우크라이나 해군 함정을 공격하여 해군 두 명에게 부상을 입히고, 선원을 감금하고, 함정을 압류했다고 보도했다.

인도 태평양에서는 공산주의 국가 중국이 긴장을 고조시켜 미국과 동맹국을 비난할 때 근거로 삼은 "냉전 정신"을 보여줬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시진핑(Xi Jinping) 중국 주석은 여러 군 사령부를 시찰하며 최고 군 통수권자로서 장성들에게 "전쟁을 준비"하고 국제 해역에서 미국이 진행하는 항행의 자유 작전에 대응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시 주석의 군사 행동 위협 전인 2018년 9월 30일에 중국 해군 루양급 구축함 란저우호가 USS 디케이터호에 공격적으로 기동하는 사건이 있었다. 2018년 10월 마리타임 이그제큐티브 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위험한 대치는 중국이 2014년 서명한 국제 해상충돌 예방규칙과 우발적 해상충돌 방지 규범을 위반한 것이다.

앞으로 방향

미국은 최신 안보, 국방, 외교 전략으로 적 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일관된 프레임워크를 갖추고 있다. 이 정책을 실행하고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군사력을 비롯하여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하다. 세계는 몇 년 전보다 더욱 복잡하고, 불안하고, 불확실하고, 모호해졌다. 전 합참의장 마틴 뎀프시(Martin Dempsey) 대장은 현재 세계 안보 환경이 "40년 복무 기간 중 가장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군사 전문가와 시민은 이러한 안보 환경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 □

2017년 3월 정기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작전 중 USS 칼빈슨호 함교에서 미국 해군 대원이 바다를 살피고 있다. 로이터

포럼 일러스트레이션

지식재산 확보

중국이 구매력, 도용, 스파이 기술을 사용하여 기술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포럼 스태프

백악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국제 규범을 벗어난 활동으로 기술 및 기업 기밀을 훔치며, 지식 재산 안보를 위협하고 세계 경제를 위험에 빠트리는 공격적인 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백악관 무역 및 제조 정책실은 "중국의 경제 공세가 미국과 세계의 기술과 지식 재산을 어떻게 위협하고 있나"라는 보고서에서 중국이 방위 산업 발전을 비롯하여 미래 경제 성장을 견인할 새로운 첨단 산업을 확보하려 한다고 분석했다.

2018년 6월 발표된 보고서에서 백악관은 "중국은 빠른 경제 성장으로 산업 기반을 현대화하고 글로벌 가치를 상승시키면서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올라섰다"며 "그러나 이러한 성장의 대부분은 국제 규범과 규칙을 벗어난 공격적인 행위, 정책, 관행(통칭 경제 침략)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국가 방첩 안보센터의 2018년 "사이버 공간에서 해외 경제 스파이"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전략적 목표는 혁신 기반 경제 성장 모델과 군 현대화로 종합적인 국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백악관 보고서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국 산업 정책이 전 세계 기술 및 지식 재산의 "도입, 소화, 흡수, 재혁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중국이 사용하는 방법에 국가 지원 지식 재산 도용, 사이버 스파이, 수출 통제법 회피, 위조 및 불법 복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중국 경제 및 안보 검토 위원회는 "중국이 인적 침투를 비롯하여 미국 기업을 상대로 산업 스파이 활동을 벌여 체계적으로 미국 기업의 정보 시스템에 침투한 후 지식 재산을 훔치고, 가치를 낮추고, 대폭 감소된 가격으로 인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민간 기업과 정부의 혁신을 노린다. 독립적인 미국 지식 재산 도용 위원회는 중국이 지식 재산 도용으로 매년 미화 2,250억 달러 ~ 6,000억 달러의 손실을 끼치는 주범이라고 결론 내렸다. 중국은 다른 인도 태평양 경제도 노리고 있다. 정보 보안을 제공하는 미국 기업 시큐어웍스는 2017년 10월 보고서에서 중국 기업 브론즈 버틀러가 2012년부터 일본 기술 기업의 지식 재산을 훔치려 했다고 폭로했다.

시큐어웍스 도난 대응 사업부는 브론즈 버틀러가 컴퓨터 시스템의 알려지지 않은 소프트웨어 결함과 보안 틈새를 이용하고, 전략적 웹 침투 도구를 만들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또는 조직으로 위장하여 민감한 정보를 확보하는 스피어피싱(Spearphishing) 기법도 사용한 것을 발견했다.

기술 기밀을 훔치려는 중국의 노력에는 때로 군사적 의도도 있다. 2016년 7월 한 중국인 기업가에게 주요 방위 산업체의 컴퓨터 네트워크를 해킹한 혐의로 미국 감옥에서 4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라는 징역형이 내려졌다. 51세의 수빈(Su Bin)은 C-17 군용 수송기와 F-22 및 F-35 전투기와 관련된 도면을 포함하여 민감한 군사 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중국군 장교의 계획에 가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46개월 징역형을 받고 벌금 1만 달러를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국가 안보 담당 보좌관 존 칼린(John Carlin)은 성명서에서 "수빈에 대한 판결은 인민해방군 공군

해커들이 민감한 미군 정보에 불법적으로 접근하여 훔치는 데 그의 역할을 인정한 것에 대한 처벌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보다 몇 년 전에 신용 평가사 에퀴팩스 관계자들이 연방수사국과 중앙정보국에 중국으로부터 산업 스파이 피해를 입었음을 신고했다고 *더 월 스트리트 저널* 신문은 보도했다. 2015년 에퀴팩스 보안 담당자들은 전직 직원이 독점 정보 수천 페이지를 삭제한 후 퇴사하고 중국으로 돌아갔다고 우려했다.

해당 자료는 계획 제품, 인사 파일, 매뉴얼에 대한 코드를 포함했다. 당시 중국 정부가 여덟 개 신용 평가사에 국가 신용 보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도와달라고 요청했다는 사실이 의혹을 더했다. 더 월스트리트 저널은 연방수사국이 영업 비밀이 도난됐다고 믿었지만 수사가 결국 중단됐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정보 수집에 엄청난 자원을 투자하고 있다. 백악관 보고서는 중국 국가안전부가 해외에 정보 요원 4만 명을 배치하고 중국 본토에 5만 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주의수호재단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이러한 투자로 전 세계 국제 지식 재산 도용 중 50 ~ 80퍼센트와 미국 내 사이버 경제 스파이 활동 중 90퍼센트 이상을 저질렀다.

사이버 위협

국가 방첩 안보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사이버 스파이 활동을 통해 민감한 영업 비밀과 독점 정보를 발견하고 미국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광범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백악관 보고서에 따르면 영업 비밀 도용만으로도 미국에 매년 미화 1,800억 달러 ~ 5,400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버라이즌은 민간 기업 및 정부 기관과 협력하여 2012년 사이버 침입 연구를 작성했다. 이 연구는 621건의 확인된 데이터 공개로 이어진 4만 7,000여 건의 보안 사고를 분석했다. 적어도 4,400만 개 기록이 유출됐다. 경제 스파이와 관련된 유출 사건 중 96퍼센트가 "중국 내 위협 행위자"의 소행이다.

수출법 회피

중국 산업 스파이들은 때때로 기술 혁신을 연구하고 복제하기 위해 중국으로 가져간다. *올란도 센티넬* 신문은 2016년 9월 미국 연방 판사가 여행 가방을 이용한 것은 물론 잠수정 부품을 불법으로 중국 대학교에 빼돌린 혐의로 중국 여성에게 거의 2년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선고 시 55세였던 센트럴 플로리다 대학교 전 직원 아민유(Amin Yu)는 중국 정부를 위해 일한 경력을 알리지 않았고 중국에 보낸 물건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외국 대리인으로 등록하지 않고 외국에 상품을 수출하고 국제 자금 세탁을 모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미국 지방 법원 판사 로이 B 돌턴 주니어(Roy B. Dalton Jr.)는 징역 21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버라이즌은 민간 기업 및 정부 기관과 협력하여 2012년 사이버 침입 연구를 작성했다. 이 연구는 621건의 확인된 데이터 공개로 이어진 4만 7,000여 건의 보안 사고를 분석했다.

센티넬 신문은 수석 검사보 다니엘 아이릭(Daniel Irick)을 인용하여 유가 셸컴퍼니(Shell Company), 해외 계좌, 허위 문서가 관련된 음모에 가담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미화 260만 달러 규모의 불법 거래에 관여했다.

사전형량조정 시 그는 중국 공립 하얼빈공정대학을 위해 일했다는 것을 인정했다. 백악관 보고서에 따르면 유는 미국 내 기업에서 잠수정 시스템 및 구성품을 확보하고 잠수정, 무인 잠수정, 원격 조정 잠수정, 자율 잠수정 개발을 위해 중국에 보냈다.

이 사례는 수출 통제법을 시행하려는 국가에 민군 겸용 기술이 증가하고 있다는 중요한 문제를 보여준다. 백악관 보고서는 "예를 들어 항공기 엔진 기술은 상업용이 분명하다"며 "중국 같은 전략적 경제 및 군사 경쟁국이 상업용 기술을 확보하면 군사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의 소셜 미디어 침투

다른 나라의 정보국처럼 중국은 미국 내 소셜 미디어 사이트에 침투하여 인력을 모집한다. 2018년 8월 국가방첩안보센터 국장 윌리엄 에바니나(William Evanina)는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중국이 인기 비즈니스 네트워킹 사이트 링크드인을 자유롭게 사용하여 정부 및 상업 비밀에 접근할 수 있는 미국 국민을 고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6년 중국 사업가 수빈(Su Bin)은 F-35B 스텔스 전투기 같은 군용 항공기의 비밀을 훔친 혐의로 4년에 가까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로이터

그는 중국 정보 담당자가 링크드인 회원 수천 명에 접근했다고 말했다. 과거 영국과 독일 당국은 중국이 소셜 미디어 사이트를 사용하여 잠재적인 스파이를 영입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에바니나 국장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소유한 링크드인에 이란과 러시아 정보국과 연계된 가짜 계정을 삭제한 트위터, 구글, 페이스북처럼 대응하라고 촉구했다.

국가방첩안보센터를 지휘하는 에바니나 국장은 "최근 트위터가 가짜 계정 수백만 개를 삭제하고 있다. 링크드인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란, 북한, 러시아도 링크드인과 다른 플랫폼을 사용하여 정보 대상을 파악하지만 미국 정보 담당자는 중국이 가장 큰 위협이라고 말했다. 로이터는 연방수사국 정보부를 지휘하는 조슈아 스쿨(Joshua Skule)을 인용하여 중국의 스파이 활동 중 약 70퍼센트가 미국 정부가 아닌 민간 분야를 노린다고 보도했다. 그는 "사상 유례없는 속도로 경제 첩보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공격적인 캠페인을 1년 이상 경고하고 있다. 2017년 6월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은 중국 해커들이 미국 기업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 DC 싱크탱크 민주주의수호재단 자문 사만다 라비치(Samantha Ravich)는 미국 기업에 대한 사이버 스파이 활동이 잠시 소강상태 후 "평소 상태로 돌아와 민간 분야에 대한 지식 재산 도용이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2015년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당시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Xi Jinping) 중국 주석이 미국과 중국이 "영업 비밀이나 기타 사업 기밀 정보를 비롯하여 사이버 지식 재산 도용을 실행하거나 의도적으로 뒷받침하여 상업적 이득을 얻지 않겠다"는 협약에 서명한 후 미국 기업에 대한 중국의 해킹이 줄었다.

사이버 정보 기업들이 2016년에 중국의 사이버 스파이 활동이 줄었다고 보고했지만 이후 여러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에 다시 증가했다.

중국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서유럽 국가도 노리고 있다. 2017년 말 독일 연방헌법수호실은 중국 정보국이 링크드인을 사용하여 정보원을 채용할 목적으로 최소한 독일인 1만 명을 노렸다고 주장했다. 2018년 6월 *쥐도이체 차이퉁* 독일 신문도 중국 요원이 가짜 소셜 미디어 프로필을 사용하여 독일 국회의원에게 접근하고 전문성과 내부자 정보에 대한 대가로 돈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요원은 국회의원을 중국으로 초대한 후 압박하여 정보를 수집했을 것이다.

2017년 말 독일 국내정보국은 중국 정보국이 독일 정부 관계자와 정치인에 대한 개인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사용한 가짜 소셜 네트워크 프로필을 상세히 공개했다.

국내정보국은 공무원들에게 소셜 미디어 사이트에 귀중한 개인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내정보국은 성명서에서 "중국 정보국이 링크드인 같은 네트워크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고, 정보를 추출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식으로 정보원을 찾는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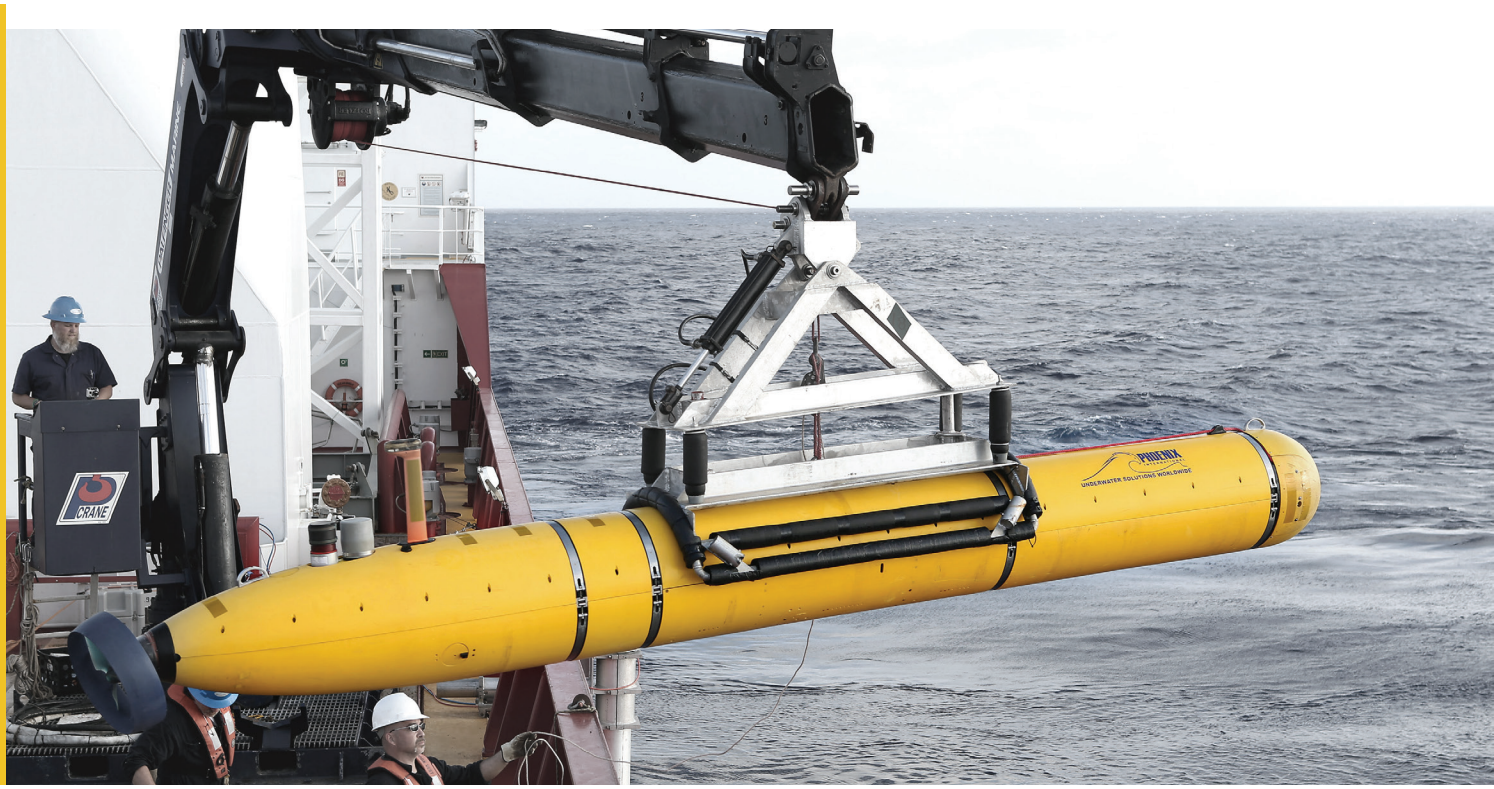
학계 내 첩보원

백악관 보고서는 중국이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 권위자인 학자, 연구자, 기술 전문가, 과학자를 적극적으로 영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활동은 중국 기업이 구매하거나, 협력하거나, 투자하려는 기업의 고위 직원을 노린다. 중국 정부가 진행하는 천인 계획은 기술 분야에서 지식재산권, 핵심 기술 또는 특허를 보유할 수 있는 최상위 연구 역량을 가진 학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들에게 중국 연구소, 실험실 또는 대학의 급여가 높고 권위 있는 직책이 종종 제공된다.

중국은 또한 중국인 학자로 미국 대학교, 싱크탱크, 실험실을 채우고 있다. 백악관 보고서는 매년 30만 명 이상의 중국 국적자가 미국 대학교에서 공부하거나 미국 국립 연구소, 혁신 센터, 인큐베이터, 싱크탱크에서 일하고 있다. 중국인 대학원생 중 약 25퍼센트가 과학, 기술, 공학 또는 수학을 전공한다. 보고서는 중국 정부가 "중국 과학 및 공학 학생이 주요 군사 시스템에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도록 격려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아래: 중국에서 태어난 한 플로리다 여성이 미국 해군 블루핀-21호 같은 잠수정에 관련된 군사 기밀을 중국에 전달했다.
미국 해군

하단 오른쪽: 중국 정보국은 다수의 소셜 미디어 네트워킹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기업 기밀을 찾아내고 있다.
AFP/GETTY IMAGES



2018년 2월 연방수사국 국장 크리스토퍼 레이(Christopher Wray)는 상원 정보위원회에서 교수, 과학자, 학생 첩보원이 국가 교육 기관에서 활동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방수사국은 중국 정부가 후원하는 대학 내 학술 단체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그는 일부 대학이 누가 캠퍼스를 감시할 수 있는지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레이 국장은 "이 사안에 대한 학계의 순진한 태도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다"고 말했다.

학계에 대한 우려는 미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2017년 10월 호주 정보국 국장 던칸 루이스(Duncan Lewis)는 호주 정치인들에게 대학이 호주 캠퍼스에 대한 외국의 영향에 대해 "매우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로이터는 루이스 국장이 또한 해외 강대국이 호주 국민, 언론 조직, 정부 관계자의 의견을 "은밀하게 형성"하여 자국의 정치적 목표를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호주 전략 정책 연구소의 2018년 10월 보고서는 중국의 공립 대학 침투가 영향력 행사보다 더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군사 비밀이 위험에 처해있다. 2007년부터 중국 인민해방군은 파이브 아이스 국가를 중심으로 군사 과학자와 엔지니어 2,500여 명의 해외 유학을 후원했다. 파이브 아이스는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 미국이 참여하는 정보 공유 동맹이다.

보고서는 "인민해방군 과학자 수십 명이 인민해방군 소속을 숨기고 파이브 아이스와 유럽연합으로 이주했고 이 중에 적어도 17명이 호주로 가서 초음속 미사일 및 항법 기술 같은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는 중국을 안보 동맹국으로 간주하지 않고 주요 정보 적대국 중 하나로 취급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인민해방군이 학계에서 군사 기밀을 수집하는 과정을 "해외에서 꽃을 따서 중국에서 꿀을 만드는 것"으로 설명한다고 전했다.

지식재산 판매

중국이 기술 우위를 차지하는 방법 중 하나는 돈이다. 중국 정부를 대신하여 활동하는 사람들은 시드 및 벤처 캐피털 자금은 물론 인수합병을 이용하여 전 세계 첨단 산업을 전략적으로 공략한다.

미국-중국 경제 및 안보 검토 위원회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 투자 중 96퍼센트가 인수였다. 2017년 상반기에도 미국 내 중국 투자 트렌드가 이어져 인수가 97.6퍼센트를 차지했다.

스타트업 기업과 초기 기술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벤처 펀딩에 참여하겠다는 중국의 의지는 비교적 새로운 현상이다. 미국 국방부 보고서 "중국의 기술 이전 전략: 중국의 신기술 투자로 전략적 경쟁자가 미국의 가장 중요한 혁신을 확보한 방법"에 따르면 중국에 기반을 둔 벤처 캐피털 시노베이션은 2009년 설립 이후, 자본금 미화 12억 달러를 확보하고 인공 지능 프로젝트에 작업 중인 25개 스타트업을 비롯하여 거의 300개 스타트업에 투자했다. 시노베이션은 구글 차이나를 지휘했던 카이푸리(Kai-Fu Lee)가 설립했다.

중국이 이 기술을 확보한 한 가지 방법은 미국 파산 법원을 주시하는 것이다. 내셔널 퍼블릭 라디오의 2018년 10월 보도에 따르면 중국 기업은 반도체처럼 가치 있는 기술을 만드는 소기업을 노린다. 중국은 또한 미국 기업과 합작 투자를 통해 중국 기업이 미국 외국인 투자 위원회의 조사를 피할 수 있다는 것도 배웠다.

백악관 보고서는 중국 벤처 자금과 관련된 위험을 경고했다. 백악관 보고서는 "중국은 미국의 미래 혁신에 기반이 될 기술과 같은 인공 지능, 자율 주행 자동차, 증강/가상 현실, 로봇, 블록체인 기술에 투자하고 있다"며 "더불어 이러한 기술 중 일부는 미국 국방부가 현재 미군이 보유한 기술적 우위를 발전시키기 위해 관심을 갖고 있는 기술이다"라고 밝혔다. □

신장 지역의 **차별** 캠페인

중국의 탄압이 역효과를 일으킬 것이다.

마크 줄리엔(MARC JULIENNE)

최근 중국은 위구르족과 카자흐족을 중심으로 무슬림 소수 민족이 억류된 신장 서부 지역의 "재교육 캠프"에 대한 보고서를 강력히 부인했다. 중국 관계자 후리안허(Hu Lianhe)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앞에서 신장 지역에 "임의 구금"과 "재교육 센터 같은 것"이 없다고 단언했다. 화춘잉(Hua Chunying)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신장 강제 수용소에 대한 보고서가 "전혀 사실을 담고 있지 않으며 검증되지 않은 무책임한 정보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방 정부 공문서, 사진 및 위성 사진, 수많은 증언을 비롯한 엄청난 양의 사실과 공개 자료는 다른 이야기를 전한다. 학문적 방법론을 바탕으로 아드리안 젠즈(Adrian Zenz), 리안 툼(Rian Thum), 제시카 배트케(Jessica Batke), 숀 장(Shawn Zhang) 같은 수많은 국제 학자의 훌륭한 연구가 현실을 밝히는 데 큰 도움이 됐다.

이제 수용소 존재 여부에 대한 논의를 해결했으므로 이 정책이 중국의 국익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논의하는 것이 더욱 의미 있다.

한마디로 중국은 대규모 감시와 "탈급진화" 시스템으로 극단주의, 분리주의, 테러리즘("삼대 악")과 싸우려 한다. 이 전략은 성공하기보다 다른 무슬림 소수 민족을 비롯하여 위구르족을 고립시키고 국내와 해외에서 급진주의를 심각히 악화시킬 수 있다.

2013년과 2014년 중국에서 테러가 급증하며 전국적으로 수백 명이 사망했다. 중국 밖 시리아에서 2013년부터 수천 명의 위구르 전사들이 무기를 들었으며 궁극적으로 신장 지역 중국 당국과 싸우기 위해 훈련을 받았다. 중국이 2015년부터 시작한 대테러 캠페인은 이후 중국 내에 테러가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 효율적인 것으로 증명됐다. 이러한 감소는 신장 지역 곳곳에 설치된 보안 장비 때문이다. 이전에 비해 중국이나 전 세계 어느 곳보다 신장 지역에 대한 감시가 철저하다. 경찰과 군인이 신장의 거리와 농촌 지역을 상시 감시하고 순찰하고 있다. 인터넷 감시, 얼굴 및 음성 인식, 통합 CCTV 카메라, DNA 기록을 비롯한 기술도 이곳의 새로운 요소다. 더불어 "교화" 캠페인으로 수많은 중국 무슬림 국민이 억류됐다(최소 수십만 명). 이들은 "종교적 극단주의와 폭력적인 테러 이념에 감염된" 사회 요소를 탈 급진화하기 위해 세워진 새로운 캠프에 억류되어 있다.

2018년 9월 인도 무슬림들은 뭄바이에서 중국이 수천 명의 위구르 무슬림 소수 민족을 신장 지역 정치 교화소에 억류한 것에 대해 시위 중이다. 플래카드 내용은 왼쪽부터 "중국 정부는 무슬림에 대한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 및 "중국은 거부권을 행사하여 인도의 원자력공급국 그룹 가입을 막았다. 중국의 거부권을 박탈하라"이다.

중국의 가혹한 접근법은 표면적으로 효과적이지만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첫째, 극단주의와 분리주의는 조용히 더 강해질 수 있다. 현재 치안 기구 아래서 모든 테러 행위가 즉시 억제되기 때문에 폭력적인 테러가 일어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하지만 종교적 극단주의는 문화적 정체성과 종교적 신념 때문에 핍박과 억압을 당한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더욱 커질 수 있다.

둘째, 중국의 대 위구르 정책은 이미 위구르족 집단 이주를 촉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 세계 비정부 인권 단체가 이 문제에 대해 중국에 반대하라고 정부와 유엔을 압박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과 서방 언론이 허위 정보를 유포하여 중국에 해를 끼친다고 비난하는 대신 신장 상황에 대해 더 많은 정보와 투명성을 제공해야 한다. 사실 서방 언론의 보도는 중국을 보는 세계의 관점에 해를 주는 주요 요소가 아니다(대부분의 정보는 국제 학자들이 공개했다). 2018년 8월 13일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 중국이 강제로 진술할 때까지 이 문제에 관련하여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장 자치구는 언제나 모든 민족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며 모든 민족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한다. 이들의 종교적 신념의 자유를 완전히 보장한다"고 밝히는 것은 국제 무대에서 중국의 목소리에 대한 신뢰를 떨어트릴 뿐이다.

셋째, 중국의 행동은 전 세계 반군을 강화할 것이다. 중국 국경 밖에 있는 위구르 분리주의 단체인 투르케스탄 이슬람 정당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시리아에서 활동한다. 투르케스탄 이슬람 정당과 이라크 시리아 이슬람 국가 같은 기타 조직은 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에서 중국에 반감을 품은 위구르족과 카자흐족 중에서 전사를 모집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은 중앙아시아와 파키스탄을 중심으로 해외에서 많은 인프라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이것은 신장 지역의 동료 민족과 종교 단체에 대한 복수를 원하는 테러리스트들의 표적이 될 수 있다.

중국 정부 관점에서 신장 상황을 분석해도 무슬림 인구를 대대적으로 억압해서 중국에 어떤 이익이 있는지 파악하기 힘들다. 이러한 유형의 정책이 국내에서 민족 간 분노, 분리주의, 극단주의를 악화하고, 중국의 국제 이미지를 떨어트리고, 해외 테러 단체가 중국을 노리게 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한마디로 약이 병보다 더 나쁜 것이 될 수 있다. □

본 기사는 2018년 9월 15일 온라인 뉴스 매거진 더 디플로매트에 게재된 내용을 *포럼* 형식에 맞게 편집한 것이다.

다중 영역 작전

포럼 일러스트레이션

눈 앞에 다가온 메가시티

앞으로 수십 년 내에 인도 태평양 지역의 군대는 인구 1,000만 명 이상의 도시에서 작전을 펼칠 것이다. 이러한 복합 임무는 잠재적으로 모든 작전 영역과 서비스를 동시에 호출하여 자연재해 및 인재에 관계없이 위협에 대한 우위를 확보할 것이다. 이것은 미국 육군 교육사령부 사령관 스티븐 타운센드(Stephen Townsend) 장군이 내다보는 이 지역의 새로운 현실이다.

태국 방콕 스카이라인을 밝히는 달빛
AP 통신

2018년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개최된 제6차 태평양 지상군(LANPAC) 심포지엄 및 박람회에서 타운센드 장군은 인공위성을 통해 "앞으로 대도시와 메가시티에서 전투를 피하기 불가능할 것이다"고 발표했다. 이번 LANPAC 심포지엄 및 박람회는 인도 태평양 26개 국의 군 지휘관을 비롯하여 방위 산업과 육군 관계자 1,600여 명이 참가하여 미래 과제를 논의했다.

다중 영역 작전 개념에 따라 미군과 동맹 및 파트너 군은 지상, 공중, 해상, 사이버, 우주 등의 모든 영역에서 효과적으로 작전하고 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 해안경비대 등의 모든 서비스 요소와 협력하여 나날이 역량이 커지는 잠재적 적을 억제하고 압도하며 효과적으로 기타 안보 우려를 관리할 것이다.

유엔 경제사회국은 2030년까지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대도시에 거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메가시티 수는 33개에서 43개로 증가할 것이며 인구 500만 명에서 1,000만 명의 대도시 수도 45개에서 63개로 증가할 것이다. 현재 세계 메가시티 중 절반 이상이 인도 태평양에 있다. 2018년 유엔 데이터에 따르면 세계 최대 도시는 인구 3,700만 명의 도쿄며 2,900만 명의 뉴델리와 2,600만 명의 상하이가 뒤를 따르고 있다. 뭄바이, 베이징, 다카의 인구는 각각 2,000만 명에 육박한다.

LANPAC 심포지엄 및 박람회에서 미국 육군 협회 선임 펠로우 제임스 듀빅(James Dubik) 예비역 중장은 "이 규모의 복잡성은 상상할 수 없는 정도다"고 말했다.

태평양의 거대한 해저분지이며 지진과 화산 활동이 정기적으로 일어나는 불의 고리에 아시아 태평양의 많은 선진국이 있고 여기에 전 세계 어느 지역보다 자주 자연재해가 일어난다는 점이 지역 역학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최근 유엔 보고서 "2017년 아시아 태평양 재해 보고서 –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계"에 따르면 주로 지진, 태풍, 홍수로 인해 1970년부터 전 세계 자연재해 사망자 수 중 약 57퍼센트, 즉 200만 명 이상이 이 지역에서 발생했다.

복잡성의 중심에는 메가시티 환경에서 전투 방법뿐만 아니라 비전투 캠페인 실행 방법도 있다. 따라서 미국 육군은 다중 영역 전투 개념을 확대하여 인도주의적 지원 및 재해 구호와 기타 형태의 비전투 지원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진화형 교리를 이용하는 수많은 미래 작전을 반영했다.

심각한 도시 취약성

메가시티는 1,000만 명 이상이 거주한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LANPAC 심포지엄 및 박람회에서 미국 교육사령부 정보 계획 및 정책 단장 러셀 글렌(Russell Glenn) 박사는 "최소한 국제 및 국경 지역에 대한 영향을 포함하기 위해 대규모 인구, 지리적 범위, 물리 및 사회적 복잡성, 유사하게 독특한 특징으로 이루어진 도시 지역"을 메가시티로 정의한다고 설명했다.

글렌 박사는 메가시티가 다른 것은 "메가시티의 영향력이 국가나 지역 내 다른 도시까지 미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도쿄를 예로 들어보자. 도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도시일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영향력이 가장 큰 도시이다. 도쿄의 도시 면적은 3,925제곱킬로미터이며 일본 인구의 약 30퍼센트, 즉 3,700만 명이 이곳에 살고 있으며 이는 제곱킬로미터당 약 8,790명이 살고 있다. 도쿄는 일본 국내 총생산의 약 35퍼센트를 차지한다. 도쿄의 GDP는 스페인보다 크며 텍사스주와 규모가 거의 같다. 주요 기업의 절반과 일본에서 활동하는 외국 기업 중 84퍼센트가 도쿄에 기반을 두고 있다.

도쿄가 피해를 당한다면 일본 경제 대부분과 지역 경제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일본이 도쿄에서 주민을 대피시켜야 할 경우 물류 문제를 상상해보라. 하룻밤 사이에 3,700만 명 이상을 수용할 곳을 찾는 데 엄청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글렌 박사는 "따라서 전쟁, 자연재해 또는 기타 사건 때문에 메가시티에서 작전해야 할 경우를 고려하면 내재된 물류 지휘 통제 요소는 단순하고 간결해야 한다"며 "메가시티의 도전은 과거 우리가 극복해야 했던 것과 다르다"고 말했다.

제2차 세계대전, 한국전 또는 베트남전 같은 과거 분쟁 시 이와 비슷한 규모로 활동한 군대는 없다. 서울의 경우 한국전 당시 인구는 100만 명이었다. 현재 수도권 지역까지 포함하면 서울 도시 지역에 2,500만 명 이상이 살고 있다.

메가시티의 범위는 계속 확대되고 강화될 것이다. 이라크 다국적 치안 전환 사령부 사령관이기도 했던 듀빅 예비역 중장은 "산업 시대에 시작된 도시화가 산업 시대에 가속됐고 정보 시대를 거치며 수많은 같은 이유와 다른 이유 때문에 더욱 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메가시티에서 시가전은 아군과 적군 그리고 메가시티 주민 모두에게 매우 폭력적이고 파괴적일 것이다."

2018년 2월 스티븐 타운센드 미국 육군 장군(오른쪽)이 바그다드 방문 중 이라크 장교와 대화 중이다.

AP 통신

전투 작전

LANPAC 심포지엄 및 박람회에서 전문가들은 메가시티 전투가 특히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타운센드 장군은 "특히 메가시티에서 시가전은 아군과 적군 그리고 메가시티 주민 모두에게 매우 폭력적이고 파괴적일 것이다"고 말했다.

2016년 10월부터 2017년 7월까지 9개월 동안 이라크 정부가 동맹국과 함께 이라크 시리아 이슬람 국가(ISIS)로부터 모술과 지역을 해방시키기 위해 펼친 작전을 통해 메가시티 전투를 짐작할 수 있다.

타운센드 장군은 "도시 환경에서 센서가 저하되고, 센서 범위가 저하되고, 무기 범위가 저하되고, 무기 효과가 저하됐다"고 말했다.

타운센드 장군은 "임무 지휘 체계가 강력한 만큼 환경의 도전을 받는다. 즉 현대 도시의 복합 지형이다"며 "한 층 더 깊이 내려가면 지상 병력과 통신이 끊어질 수밖에 없다. 작은 도시에서 싸울 때도 사령관이 의도한 바를 대원들에게 명령하고 대원들이 임무를 완수할 것이라고 신뢰해야 할 것이다.

모술에서 미군과 동맹군이 싸웠다면 더 빠르게, 덜 파괴적으로, 적은 사망자 수로 이겼을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미국에도 모술은 매우 힘든 문제였을 것이다"고 말했다.

모술은 세계 신흥 메가시티에 비하면 작다. 전투 개시 시 모술 인구는 약 150만 명이었다. 15만 명 미만의 병력이 전투에 참가했고 약 1만 5,000명이 사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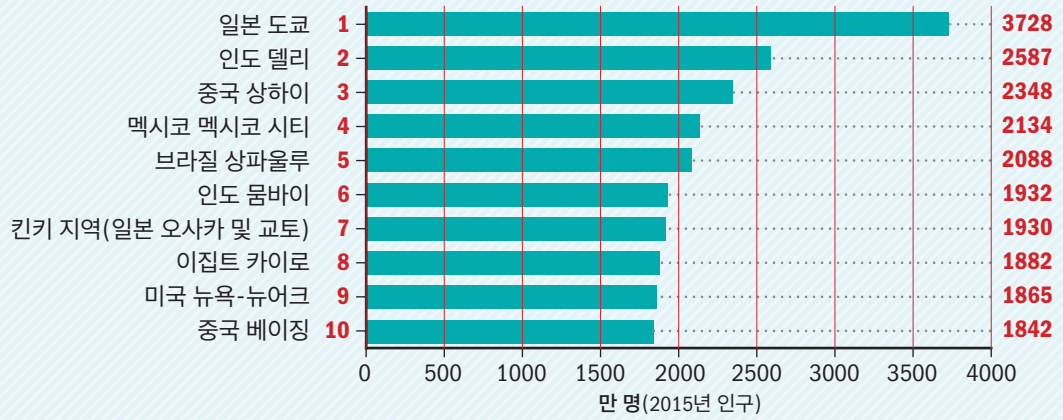
타운센드 장군은 "적들은 모술을 지켜봤고, ISIS는 이를 보고있다. 국가들은 전 세계의 위협이 고조되는 것을 보았다 적들은 의도적으로 도시에 침입하여 싸울 것이다. 여러 가지 기술 우위가 사라지기 때문이다"며 메가시티에서 싸우게 될 것이며 이를 피할 방법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LANPAC 심포지엄 및 박람회에서 한미연합사 참모장 마이클 빌스(Michael Bills) 중장은 "도시 지형은 결의에 찬 전투원을 상대할 때 중요한 무기다"며 "메가시티는 방어자의 힘을 강화하고 공격자의 강점인 화력과 이동성을 떨어트린다"고 말했다.

지하에 수백 킬로미터의 지하철 노선, 수백 개의 지하철역, 쇼핑몰이 있는 오늘날 서울을 방어하는 것을 생각해보자. 빌스 중장은 터널용 소형 중계기 같은 통신

도시 통계

세계 10대 도시



2028년이 되면 델리가 도쿄를 제치고 세계 최대 도시가 될 것이다.

8명 중 1명이 전 세계 **33개 메가시티** 중 한 곳에 살고 있다.

현재 도시 거주 인구는 **42억 명, 즉 전 세계 인구의 55퍼센트를 차지한다.**

현재 도시 거주 인구 비율

도쿄 고층 건물을 내려다보는 만년설로 덮인 후지산은 세계 최대 메가시티의 자연재해 및 인공 위협 가능성을 보여준다.
AP 통신

농촌 통계

세계 농촌 인구 중 약 **90 퍼센트**가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살고 있다.

유엔은 2018년부터 2050년까지 도시화의 **35 퍼센트**가 중국, 인도, 나이지리아에서 일어날 것으로 추산한다.

인도의 농촌 인구는 **8억 9,300만 명**으로 가장 많다.

중국의 농촌 인구는 **5억 7,800만 명**으로 두 번째로 많다.

출처: 유엔 보고서: "2018년 세계 도시화 전망 재조정", 2015년 인구 데이터 기반, https://www.un.org/development/desa/publications

시스템에 기술적 장점이 있지만 현대 건축물 때문에 활동이 제한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이유로 다중 영역 작전이 메가시티 임무에 중요하다고 LANPAC 심포지엄 및 박람회에서 미국 고위 지휘관들은 말했다.

다중 영역 작전으로 지휘관들은 다양한 옵션을 사용하여 새로운 위협을 해결할 수 있다. 새로운 교리는 다른 나라의 다양한 서비스와 파트너 군대의 역량을 통합하여 적을 무찌르는 것을 추구한다. 예를 들어 호주 같은 나라가 위협을 감지하면 한국이 추적하고 일본이 제거할 수 있다.

2017년 7월 모술 구도시에서 이라크 군이 이라크 시리아 이슬람 국가를 압박하는 가운데 이라크 피난민이 무너진 알누리 모스크 옆을 지나고 있다.

AP 통신

이상 초음속으로 비행하는 타입 12 지대함 미사일을 발사했다.

침몰 훈련에 참가한 제17 야전 포병 여단 사령관 크리스토퍼 웬드랜드(Christopher Wendland) 대령은 "다중 영역 작전은 다중 영역 표적 처리에 의존한다"고 설명했다. 여단은 다중 영역 교리를 야전에서 시험하기 위해 설립된 다중 영역 태스크 포스의 기반을 이룬다.

웬드랜드 대령은 "우리 목표는 합동 상호운용성을 만들어 모든 영역에서 적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조율을 통해 모든 영역의 정보를 종합하여 목표를 확인하고 적시에 타격해야 한다.

다중 영역 작전은 무인 감시 자산, 항공기, 장거리포, 대공 방어, 전자전, 사이버 및 우주 자산 같은 역량을 통합하고 동기화하여 위협의 근거리 접근을 거부한다.

당시 미국 태평양 육군 대변인이었던 크리스토퍼 가버(Christopher Garver) 예비역 대령은 다중 영역 작전이 기존 연합 무기 활동을 기반으로 사이버 및 우주 영역을 더한다고 말했다.

가버 예비역 대령은 "미래 지상군은 다섯 개 영역의 더 깊은 레벨을 더욱 직접 활용할 것이다"고 말했다.

야전 테스트 완료

2018년 7월 중순 미국 육군은 세계 최대 국제 해양 훈련 환태평양훈련에서 다중 영역 작전 개념을 최초로 실행했다. 25개 국가, 함정 46척, 잠수함 5척, 항공기 약 200대, 병력 2만 5,000명이 참가한 환태평양훈련은 2018년 6월 27일부터 8월 2일까지 하외이 및 남부 캘리포니아 인근에서 진행했다.

다중 영역 작전 침몰 훈련 중 미국 합동군은 일본 및 호주 대원과 함께 영역 전반의 모든 서비스를 연결하는 지상, 해상, 공중별 일련의 정밀 합동 타격을 진행했다. 이들은 퇴역한 해군 상륙함 USS 라신호를 타격하여 태평양에 침몰시켰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다국적군은 실시간으로 장거리포, 공중 및 수중 공격, 연안 미사일로 표적을 공격했다. 예를 들어 일본 지상 자위대는 100해리

대형 도시 시스템의 과제

역사적으로 미군은 대도시를 포위하거나, 고립시키거나, 피하려 했다. 그러나 이제 메가시티에서 싸우는 법을 배워야 한다. 빌스 중장은 여전히 모술을 포위할 수 있었지만 인구 1,000만 명 이상의 도시를 포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메가시티는 포위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다. 미래 인류 지형의 무게 중심에 영향을 주려면 메가시티 안으로 들어가 작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가시티는 엄청난 규모 이외의 다른 과제를 안고 있다. 군 활동이 농촌 환경에서는 고립될 수 있지만 도시에서는 도미노 또는 파급 효과를 일으키는 경향이 있다.

타운센드 장군은 "도시에서 모든 행동은 반향을 일으킨다"고 말했다.

2017년 8월 서울 지하철 역 승객들이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의 일환으로 진행된 대테러 훈련 중 경찰을 보고 있다.
AP 통신

군 지휘관은 메가시티에서 활동이 지역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지도 고려해야 한다.

글렌 박사는 "메가시티는 그 자체로도 수많은 하위 시스템으로 구성된 것은 물론 전 세계로 확장할 수 있는 훨씬 더 큰 시스템의 일부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공식 및 비공식 권력 원천과 내재된 위협이 있다.

빌스 중장은 "사회 구조가 물리적 구조보다 더 중요할 것이다. 주요 지형은 지상이 아닐 수 있고 심지어 도시 지역도 아닐 수 있다"며

이 때문에 메가시티에는 군사적 장점을 넘어서 전략적 장점을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더불어 위기와 분쟁으로 대도시의 정상적인 흐름에 장애가 발생하면 새로운 흐름이 일어난다. 도시의 독특한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군 지휘관의 주요 과제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양호한 통치 제공 같은 민간 우려와 물 및 전력 공급 보호 같은 환경 우려도 활동을 제한할 것이다.

메가시티는 블록 단위로 변할 뿐만 아니라 매일 변한다. 타운센드 장군은 "도시 환경은 매우 빨리 변한다"며 " 모술의 경우 도시 환경이 이미지 업데이트 속도보다 빨리 변했기 때문에 C2 시스템과 표적 처리 시스템 등이 금세 쓸모 없어졌다"고 말했다.

또한 평화 시기에 도시 확산으로 역학이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다. 빌스 중장은 "착륙 지역이 하룻밤 사이에 쇼핑몰이나 주차장이 된다"고 말했다.

정보, 사이버, 전자전이 메가시티 다중 영역 작전의 핵심이 될 것이다. 상황 인식을 유지하기 위한 정보 및 분석 규모만도 엄청나다. 언어 및 문화 이해도 작전 및 대응 관리에 중요하다.

빌스 중장은 "메가시티에서 몇 달 혹은 몇 년의 여유가 없다. 시민들에게 도움을 받고 재해 후 정상으로 복구할 것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위 지휘관들은 지속적인 관계 구축, 정보 공유, 파트너십의 복잡성 이해가 성공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글렌 박사는 "민군 관계의 장점을 활용해야만 우리가 활동하는 환경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호운용성 수반

인구 통계 변화는 장차 재해 및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메가시티와 특히 인도 태평양 지역에 재해와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지역은 이미 두 가지 모두를 촉진한다. 더불어 메가시티에서 작전으로 모든 서비스가 모든 영역에서 활동해야 하고 동맹이 과제를 안게 될 것이라고 고위 지휘관들은 말했다.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몽골, 네팔, 타이완, 피지, 바누아투에서 온 LANPAC 심포지엄 및 박람회 참가자에게 타운센드 장군은 "지역 내 파트너십을 분열시키는 적이 있다. 이러한 과제에 대한 공통 이해와 상호운용성을 꾸준히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중 영역 작전 개념을 발전시키는 데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다. 메가시티 전투를 고려하면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메가시티 전투에서 여러분은 미국을 파트너로 의지할 수 있다. 우리는 앞으로 상호운용성을 개선할 것이다"고 말했다. □

비핵화로 가는 험한 길

회의적인 시각 속에서도 북한 비핵화를 여전히 추진 중이다

포럼 일러스트레이션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위원장의 역사적인 정상 회담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 관계자들은 2018년 6월 싱가포르 회담과 2019년 2월 베트남 회담이 북한 비핵화로 이어질 수 있는 작은 신뢰 구축 합의를 달성할 수 있다고 여전히 낙관하고 있다.

*더 뉴욕 타임스 신문*에 따르면 2019년 4월 워싱턴 DC에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함께한 기자 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작은 다양한 합의를 이룰 수도 있다"며 "진전을 이룰 수 있다. 작은 단계별로 진행할 수도 있지만 현재 큰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핵심 과제는 핵무기를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비핵화로 가는 길에서 넘어야 할 과제는 매우 크다. AP 통신은 북한이 정상 회담 후 2019년 4월 새로운 유형의 전술 유도 무기를 시험 발사했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AP 통신은 북한이 금지된 중거리 또는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것이 아니라 미국과 회담에서 약점을 보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군부에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후 2019년 5월 초 북한은 전문가들의 판단에 따르면 단거리 탄도 미사일로 보이는 비슷한 전술 유도 무기를 시험한 것으로 보인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북한은 투명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더 어렵다. 2018년 11월 워싱턴 DC 전략 및 국제학 연구소는 북한이 신고하지 않은 20개로 추정되는 미사일 운영 기지 중 13개를 찾았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일본과 한국 정상들이 북한 지도층을 회유하고 미국의 비핵화 노력을 지원하는 사이 김 위원장은 러시아에 지원을 요청했다.

미국과 동맹국은 차질을 겪으면서도 협상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2018년 9월 문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아직 할 일이 많다는 점을 인정하며 3차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에 찬사를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에 진전이 없다며 2018년 8월 말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국무부 장관의 북한 방문을 취소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제재를 엄격히 실행하여 북한이 한반도의 경제 번영과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 비핵화가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30분 동안 진행한 2019년 신년사에서 제재를 비판하고 미국에 분명하게 요청했다. 그는 미국이 "계속해서 약속을 깨고, 일방적인 요구로 북한의 인내심을 오판하고, 제재와 압박을 가하면" 북한이 "새로운 길"을 선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한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회의론자들은 모든 회의와 성명서를 검토하고 각 단계를 지체 없이 비판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부 분석가들은 국제 감찰관의 입회 아래 주요 미사일 시험장을 영구 폐쇄하겠다는 김 위원장의 약속이 미사일 및 핵무기 프로그램을 계속 추진할 수 있는 북한의 역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한다.

북한 핵프로그램을 연구해온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무기 통제 연구원 비핀 나랑(Vipin Narang)은 2018년 9월 내셔널 퍼블릭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시험장 폐쇄에 " 전혀 비용이 들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큰 그림을 봤을 때 비핵화를 위한 큰 진전은 아니다"고 말했다.

나랑은 김 위원장이 영구 폐쇄했다는 시험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 후 부분 해체하겠다고 약속한 것과 같은 시험장이라고 지적했다. 나랑은 내셔널 퍼블릭 라디오에

북한 백두산 정상에서 김정은 북한 위원장(가운데 왼쪽)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가운데 오른쪽)이 각각 배우자를 옆에 두고 손을 잡고 있다. 로이터

"김 위원장이 기본적으로 몇 달 동안 한 시험장을 협상에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놀랍다"고 말했다.

이 시험장은 통창리, 동창리, 소해 시험장 등의 여러 가지 이름을 갖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 후 이곳은 주로 소해 시험장으로 불린다. 김 위원장은 최근 성명서에서 이곳을 동창리 시험장이라고 말했다. 나랑은 다양한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혼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나랑은 여러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북한이 실제로 양보하지 않으면서도 양보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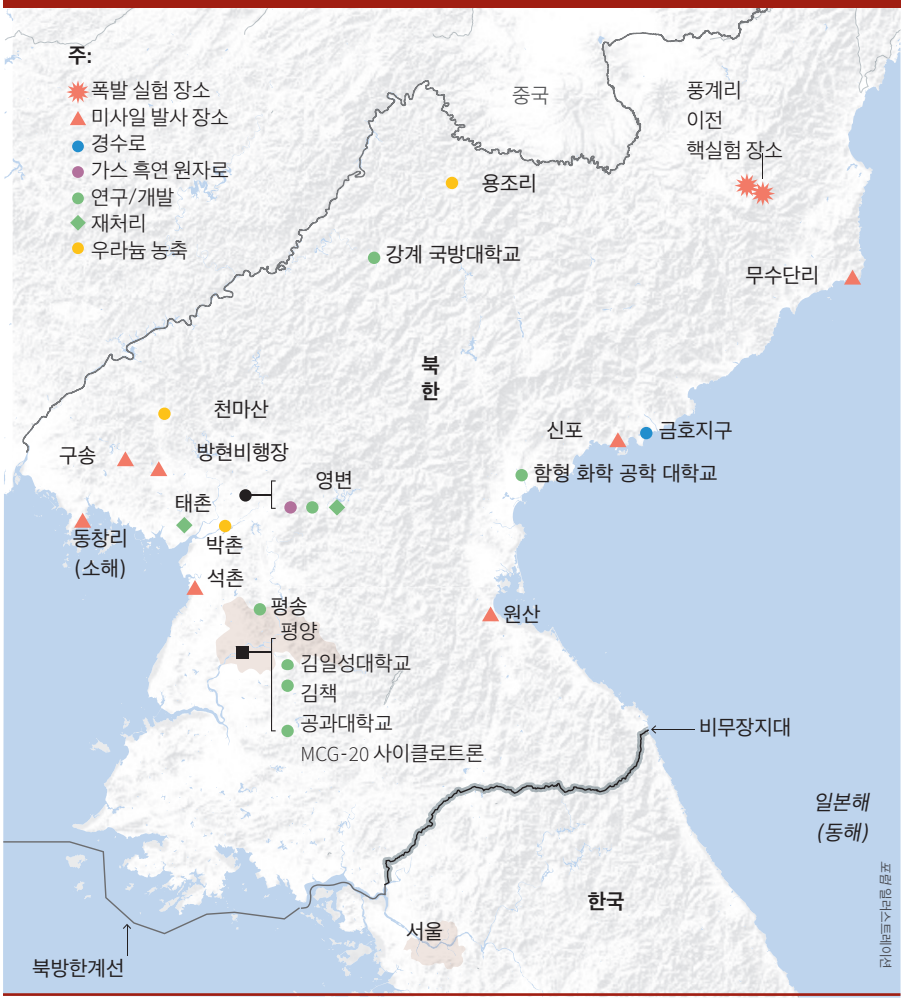
변화하는 관계, 새로운 기회

트럼프 대통령만 김 위원장과 새롭게 변화하는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아니다. 김 위원장과 문 대통령의 외교적 관계도 극적인 변화를 경험했다.

남북한은 2000년 이후 다섯 차례 정상 회담을 열었다. 최근 가장 중요한 결과는 남북을 가르는 국경선의 군사적 긴장을 줄이기 위한 협정에 양국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것이다. 2018년 9월 보도에 따르면 협정에 공중, 지상, 해상에서 군사 활동을 관리하고 줄이는 조항이 있다.

AP 통신은 비무장지대의 긴장을 줄이기 위한 협정의 일환으로 2018년 11월 남북한이 22개 최전선 초소에서

북한 핵시설



출처: 로이터, 핵위협방지구상, 미국 과학자 연맹, 한미연구소, 존스 홉킨스대학교, 미국 지리학회

부대와 무기를 철수했다고 보도했다. 2018년 9월 체결된 합의서는 신뢰 구축, 평화 안정화, 화해 추진을 위한 조치 실행을 촉구했다. AP는 이산가족 상봉도 더 많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러한 화해 분위기 속에 한국은 북한의 인프라를 건설하고 남북 철도를 개통하겠다고 제안했다.

2018년 9월 김 위원장과 문 대통령은 백두산 정상에서 회담을 마무리했다. 백두산은 남북한이 모두 신성시하는 곳이며 역사적으로 김씨 왕조를 합법화하는 정치 선전에 핵심적으로 사용됐다. 남북 정상은 백두산 정상에서 손을 잡고 승리 포즈를 취했다.

AP 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우리는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로 합의했다"며 "미래로 가는 길은 항상 순탄하지 않을 것이며 예상치 못한 도전과 시련을 직면할 수 있다. 하지만 역풍이 두렵지 않다. 우리의 강점을 바탕으로 시련을 극복하면서 힘을 키울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미사일 시험장 폐쇄 시 국제 감찰관의 감시를 수락하기로 합의했다. 남북 정상은 2032년 하계 올림픽 개최를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AP 통신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우리는 5,000년 동안 함께 살았고 70년 동안 떨어져 있다"며 "이제 지난 70년의 적대감을 완전히 없애고 평화를 향한 큰 걸음을 내디뎌 다시 하나가 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외부 영향

북한은 국경을 공유하는 중국과 러시아와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기타 정상들은 북한의 바쁜 행동을 길들이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하라고 중국을 압박했다. 밀수꾼들은 관리가 허술한 중국과 북한 사이의 국경을 통해 암시장 상품과 대북 제재 금지 상품을 가져온다. 중국은 영향력을 발휘하여 북한의 태도를 고치게 하라는 요청을 받아도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있다.

2018년 9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니키 헤일리(Nikki Haley) 당시 미국 대사는 중국과 러시아에 지속적인 대북 제재 회피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CBS 뉴스에 따르면 헤일리 대사는 "이사회 전반에서 러시아가 단계마다, 제재마다, 반복하여 제재를 무너트리기 위해 노력 중이다"고 말했다.

그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를 열어 북한이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게 압박하는 제재를 실행하지 않는 러시아와 중국을 규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헤일리 대사는 "북한과 어렵고 민감한 회담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아직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며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현재 진행 중인 강력한 국제 제재를 완화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서로 다른 시각

일부 전문가들은 2018년 6월 비핵화 선언의 네 조항을 실행하는 순서와 범위에 대해 북한과 미국의 견해가 다르다고 말한다.

네이크 커크호프(Nate Kerkhoff)는 2018년 8월 호주에 기반을 둔 이스트 아시아 포럼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은 미사일 및 핵실험 중단, 특정 무기 시설 해체, 미군 유해 송환이 비핵화 선언의 신뢰 구축 조치를 충족한다고

2017년 4월 평양 열병식에 대륙 간 탄도 미사일이 등장했다. 로이터

생각한다"며 "이제 북한은 나머지 조항을 진행하고 미국에 평화를 수립하기 위한 '과감한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로널드 레이건(Ronald Reagan) 미국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이었던 카토 연구소 선임 펠로우 더그 밴도우(Doug Bandow)는 북한의 조치가 과장에 불과할 수 있으며 회의론자들이 의심하는 데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준비가 됐다고 믿는 북한 전문가는 거의 없다. 핵은 권위를 제공하고, 유용한 강탈 도구이며, 정권에 대한 군부의 지원을 공고하게 한다. 또한 김 위원장과 그의 지지자들이 리비아 지도자 무아마르 알 카다피(Muammar Al Gaddafi)처럼 끝나지 않게 보장한다"고 밴도우는 2018년 9월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 매거진에 기고한 "북한 비핵화는 공짜가 아니다"라는 글에서 주장하며 "카다피는 결국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했기 때문에 반군에 의해 처형되는 동영상이 유튜브에 게시되는 말로를 걷게 됐다. 따라서 김 위원장이 미사일 및 핵실험 중단, 핵무기 수 제한, 특정 형태의 보호/조사 허용, 기타 긴장 완화 조치 채택 등의 합리적인 최소 합의를 할 수는 있으나 모든 것을 제거하는 것은 최선의 상황에서도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여전히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그 가능성은 적어도 현재로서 매우 낮다.

2018년 8월 일본 국방백서와 이후 2018년 12월 발표된 국방 프로그램 지침에 북한은 여전히 군사 위협으로 남아있다. 일본은 8월 백서에서 북한이 약속을 지키는지 주시하면서 자체 미사일 역량을 추가하고 완전히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8월 백서는 "북한의 군사 행동은 그 어느 때보다 일본의 국가 안보에 심각하고 긴급한 위협이 됐다"며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위협에 대한 일본의 기본 인식은 변함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2017년 북한은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여러 차례 시험 발사했으며 이 중 일부는 일본 상공을 통과했다. 여러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일본을 타격할 수 있는 단거리 로동 미사일도 보유하고 있다.

일본은 8월 백서에서 2018년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정상 회담이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고 인정했지만 "북한이 핵 및 (탄도) 미사일을 폐기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지 신중히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몇 주, 몇 달, 몇 년은 모든 측면에서 예기치 못한 도전과 정밀한 조사로 채워질 것이다. 또한 아무리 느리고 신중하다 하더라도 진전이 이루어져 한반도가 통일되고 북한이 비핵화될 것이라는 희망이 이어질 것이다.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밴도우는 "남북한 국민은 모두 국민의 복지와 안전을 지키는 민주 정부가 통치하는 땅에서 함께 평화롭게 살 자격이 있다"며 "하지만 북한은 소망한다고 사라지는 현실이 아니다. 미국의 강력한 군사력으로도 막대한 비용을 치르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평화 유지는 모든 것이 달린 토대이다"라고 주장했다. □

태평양 설득

투발루 정부는 2019년 태평양 섬 포럼을 개최하기 위해 수도 푸나푸티에 컨벤션 센터를 건설하고 있다. GETTY IMAGES

주요 강대국과 신흥 강대국들이 남태평양 국가들과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중국의 영향력을 억제하고 있다.

포럼 스태프

중국의 태평양 지역에서의 활동이 태평양 내외 주요 강대국과 신흥 강대국에 충격파를 주었다. 중국은 최근 몇 달 동안 오스트랄라시아, 멜라네시아, 미크로네시아, 폴리네시아 국가와 신속히 경제 및 국방 관계를 맺었다. 중국 공산당 정부가 태평양에 대한 관심을 높이자 호주,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미국을 비롯한 지역 내 기타 전략적 파트너들이 더욱 창의적으로 협력하고 중국보다 더 유리한 경제 및 국방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했다.

AFP 통신에 따르면 2018년 7월 줄리 비숍(Julie Bishop) 당시 호주 외교부 장관은 "우리는 좋은 투자가 투명성, 개방적인 경쟁, 지속가능성, 굳건한 국제 표준 준수, 현지 인력 고용, 지속 불가능한 채무 부담 회피에서 비롯된다는 믿음을 공유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발언은 "경제 성장을 추진하고, 기회를 만들고, 자유롭고, 개방적이고, 포용적이고, 번영하는 인도 태평양을 육성하는 프로젝트에 투자하기 위한" 호주, 일본, 미국의 삼자 파트너십 발표 중 이루어졌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중국은 2011년부터 남태평양 지역에 미화 60억 달러 이상을 약속하며 이 지역에서 두 번째로 큰 원조 기부국으로 입지를 다졌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미화 67억 2,000만 달러를 약속하고 미화 55억 8,000만 달러를 집행한 호주가 최대 원조 기부국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또한 뉴질랜드, 미국, 일본이 각각 3위, 4위, 5위 원조 기부국이라고 전했다.

태평양 섬 국가 및 기타 지역

2018년 8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51**차 아세안 외무부 장관 회의에서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미국 국무부 장관(오른쪽)이 타로 고노(**Taro Kono**) 일본 외무성 대신(왼쪽)과 줄리 비숍(**Julie Bishop**) 당시 호주 외무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 로이터

군사 기동

호주, 뉴질랜드, 남태평양 섬 국가와 미국, 프랑스, 영국 영토를 포함하는 이 거대한 해양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은 종종 중국 대 다른 모든 나라 사이의 다툼으로 보인다.

2018년 초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 미국 정상들은 태평양 국가들과 경제 접촉을 늘려 이들 나라를 중국으로부터 떼어놓겠다는 의사를 확인했다. 정상들은 태평양 국가 중 중국의 약속을 인정한 나라가 없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중국의 진출에 대응할 시간이 아직 있다고 말한다.

2018년 9월 *더 오스트레일리언* 신문은 호주 정보 분석가들이 중국이 남태평양 지역에 군사 기지를 구축하려 한다는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이 지역이 호주의 최대 위협이 됐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2018년 4월 중국이 비공식적으로 바누아투에 접근하여 이 작은 섬나라에 해군 기지를 세우려 했다는 보도가 전해졌다. 바누아투와 중국은 모두 그러한 논의가 있었거나 계획이 존재한다는 것을 부인했다. 그러나 호주 정보부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고 전문가들은 그것이 가능한 시나리오가 될 수 있는지 의견을 제시했다.

2018년 4월 온라인 뉴스 매거진 더 디플로매트에 따르면 중국은 남태평양의 솔로몬제도, 동티모르, 통가 지역에서 중국인 수백 명을 대피시켰다. 이러한 대피는 중국인이 소유한 기업에 대한 공격과 이주 때문에 이루어졌다.

호주국립대학교 국가안보대학 수석 연구 펠로우 데이비드 브루스터(David Brewster)는 2018년 4월 더 디플로매트에 기고한 글에서 "중국의 남태평양 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사고의 규모와 강도가 쉽게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기 어렵지 않다"며 "이러한 요건과 기타 요건 때문에 중국이 위기 시 현지 시설을 활용할 안전한

방법을 찾는 것일 수 있다. 과거 피지에 위기가 발생했을 때 호주가 그곳에 거주하는 호주 국민을 지켜봤던 것처럼 중국은 현지 정부가 안전을 보장하지 못할 경우 직접 안전을 제공해야 한다고 느낄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18년 9월 *더 오스트레일리언* 신문은 중국이 바누아투 군사 기지를 부인했지만 호주와 미국은 파푸아뉴기니 마누스섬 기지의 군사 인프라를 개선하고 여기에 합동 해군 기지를 설립할 계획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Adm. 전 미국 국가안보국 국장 겸 미국 사이버 사령부 사령관 마이크 로저스(Mike Rogers) 장군은 이 기지가 호주와 파푸아뉴기니에 "윈윈"이라고 말했다.

더 오스트레일리언 신문에 따르면 로저스 장군은 "파누아뉴기니와 흥미로운 자원을 가진 다른 곳을 살펴보면 중국이 그곳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 관계를 구축하려는 것이 분명하다. 그것이 본질적으로 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인 전략이라는 것이다. 충동적으로 진행하거나 오세아니아의 섬 하나를 무작위로 선택하고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다. 이유가 있다. 우연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더 오스트레일리언 신문은 호주의 2018년 남태평양 총 방위비 지출이 미화 1억 2,000만 달러를 기록했고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크리스토퍼 파인(Christopher Pyne) 호주 국방부 장관은 "태평양은 전략적 국가 안보 이해가 있는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라고 말했다.

인도의 영향력 강화

인도는 최근 몇 년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주요 경제국으로 부상했으며 향후 10년간 중국보다 더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의 작지만 성장 중인 해외 원조 대부분은 남아시아와 인도양의 인접 국가에 전달되지만 인도의 원조 외교는 피지를 중심으로 남태평양의 작은 국가까지 확대됐다. 피지 인구의 약 38퍼센트는 인도계 피지인으로서 19세기 영국이 피지에 데려온 인도 계약 노동자들의 후손이다.

인도는 동쪽 이웃 국가와 교류를 장려하는 동방 정책을 오랫동안 채택해왔다. 인도 지도자들은 최근 뉴질랜드 컨소시엄과 협력하여 경제, 무역, 외교, 안보, 통치, 사회 발전의 주요 분야를 개발했다.

싱가포르국립대학교 남아시아연구소 방문 펠로우 라니 D 물렌(Rani D. Mullen)은 신흥 강대국 인도가 지역 및 해외 참여를 확대하면서 남태평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100여 년의 오랜 역사와 태평양에서 이주를 고려하면 이것은 새로운 교류가 아니다"며 "새로운 사고는 소프트 파워로 태평양 섬 국가들과 더 많은 교류를 이끌어냈다. 교류는 주로 훈련, 교육, 문화 참여로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Adm. 2018년 8월 미국 인도 태평양 사령관으로서 뉴질랜드를 첫 방문한 필 데이비슨(Philip S. Davidson) 장군이 뉴질랜드 웰링턴 푸케아후 국립 전쟁기념공원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로빈 W 피크(ROBIN W. PEAK) 하사/미국 해군

물렌은 투자자를 찾는 남태평양 국가에 다른 시장과 다양성이 좋은 것이지만 조건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물렌은 "인도는 신흥 강대국이자 중국의 라이벌이다. 국가는 중국이 제안하는 투자, 상환율, 높은 금리를 검토해야 한다. 통가의 사례처럼 이런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중국이 인도와 가까운 버마, 몰디브, 파키스탄, 스리랑카에 항구 공사를 시작했을 때 인도는 깜짝 놀랐다. 인도는 더 나은 경제 참여로 이어질 수 있는 양호한 실무 관계를 구축하려 한다. 이것이 최근 들어 남태평양과 교류하는 이유 중 하나다"고 말했다.

뉴델리 자와할랄 네루 대학교 국제학 연구소 교수 라제시 라자고팔란(Rajesh Rajagopalan)은 인도 태평양 전역에 부는 변화의 바람으로 인도가 눈을 뜨게 됐다고 말했다.

라자고팔란 교수는 "인도는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평화적이거나, 긴장적이거나, 갈등적인 세계 외교 정책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태평양 전략

신조 아베(Shinzo Abe) 일본 총리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는 최근 해양 질서를 지향하는 태평양 섬 국가들을 위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공개하면서 한 걸음 더 나갔다.

2018년 5월 아베 총리는 제8차 태평양 섬 지도자 회의를 개최하고 법치주의에 입각한 해양 질서에 더 집중할 것을 약속했다. 이는 남태평양 내 중국의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해 일본이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조치 중 하나다.

더 디플로매트는 2015년 태평양 섬 지도자 회의 중 일본이 미화 4억 6,000만 달러를 남태평양 국가에 지원을 약속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솔로몬제도의 숲

로이터

2018년 10월에 발표된 환경 단체의 연구에 따르면 남태평양 국가 솔로몬제도는 중국의 끊임없는 목재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열대림을 지속 가능한 속도의 거의 20배로 벌목하고 있다.

중앙은행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솔로몬제도가 수출한 단일 최대 수출품의 수출량은 20퍼센트 이상 증가하여 300만 입방미터에 도달했으며 이는 미화 3억 7,800만 달러 규모다.

환경 및 인권 단체 글로벌 위트니스는 이는 지속 가능한 수준보다 19배 이상 높은 규모이며 이 상황이 계속되면 솔로몬제도의 숲이 황폐화되어 가장 큰 경제 성장 동력이 곧 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산림 파괴는 또한 지역 식량원인 야생 과일과 채소를 없애고 동물 서식지를 파괴한다.

글로벌 위트니스는 또한 수입 데이터를 분석하고 목재의 압도적으로 대다수가 세계 최고 목재 수입국인 중국에 보내졌다는 것을 발견하고 중국이 시급히 목재 수입을 규제하고 원산지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팀을 이끈 베이베이 인(Beibei Yin)은 글로벌 위트니스 본부가 있는 런던에서 참여한 전화 인터뷰에서 "벌목 규모가 지속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바뀌지 않으면 자연 숲이 곧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목재 대부분을 수입하는 중국 기업들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들이 모두 수입을 중단하면 여전히 되돌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위트니스는 솔로몬제도의 지속 가능한 목재 수출량으로 15만 5,000입방미터를 산정했고 이는 여러 정부 및 전문가 분석 중 가장 낮지만 가장 최근에 계산된 값이며 가장 높은 값은 약 30만 입방미터다.

글로벌 위트니스는 자체 산정한 산림 소멸 날짜를 제공하지 않았으나 솔로몬제도 산림부의 2011년 예비 추정치인 2036년을 인용했다.

솔로몬제도 총리실은 로이터에 산림부 장관에게 문의하라고 했으나 장관은 의견 요청에 즉각 답변하지 않았다.

팩스로 중국 상무부에 의견을 요청했으나 즉각 답변하지 않았다.

솔로몬제도 990개 섬에 퍼져 있는 숲은 국토의 약 80퍼센트를 차지하며 면적은 220만 헥타르 이상이다.

앞서 솔로몬제도 산림부 장관이 불법 벌목에 대처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했다고 밝혔지만 글로벌 위트니스는 집행 능력 부족으로 허용치 이상 벌목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글로벌 위트니스는 위성 사진을 분석하고 명목상 벌목이 금지된 400미터 고지에 669킬로미터 벌목 도로가 있다고 밝혔다.

인터폴은 불법 목재의 전 세계 거래액을 연간 미화 500억 달러 이상으로 추산한다.

산림 파괴는 또한 지역 식량원인 야생 과일과 채소를 없애고 동물 서식지를 파괴한다.

솔로몬제도의 검은 얼굴 피타

"법치란 크기에 관계없이 국가의 고유한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 신조 아베 일본 총리

2017년 2월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회의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이 신조 아베 일본 총리를 맞이하고 있다.

GETTY IMAGES

2018년 5월에 개최한 태평양 섬 지도자 회의는 아베 총리와 투일라에파(Tuilaepa) 사모아 총리가 공동 의장직을 맡았다. 일본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 전략" 을 바탕으로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더 깊이 헌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태평양 섬 국가들은 전략에 포함된 기본 원칙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태평양 지역에서 전략에 따른 일본의 헌신 강화를 환영했다. 아베 총리는 법치를 바탕으로 해양 질서에 더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같은 달 일본이 자금을 지원하는 태평양 기후 변화 센터가 사모아에서 착공됐다.

아베 총리는 3년마다 한 번씩 개최되는 태평양 섬 지도자 회의를 통해 태평양 섬 포럼 회원국의 대표를 모아 관계를 강화할 기회를 갖는다.

2018년 5월 태평양 섬 지도자 회의 중 아베 총리는 " 고대부터 태평양은 우리에게 축복의 바다였다. 법치란 크기에 관계없이 국가의 고유한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며 "일본은 각 국가의 법 집행 역량을 포함하여 바다를 보호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다" 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태평양 섬 파트너들에게 일본이 "하드 및 소프트 측면"에서 모두 양질의 인프라를 개발하여 자립 번영과 지속가능성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또한 일본이 "태평양 섬 지도자 회의 국가의 미래를 짊어질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인적 교류를 강화할 것" 이라고 말했다.

다음 태평양 섬 지도자 회의는 2021년 개최될 예정이다.

감정과 지성

남태평양의 파트너십은 무수한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호주, 일본, 미국의 3대 강국은 중국에 대한 대응책으로 앞으로도 협력하고 또 다른 전략적 관계를 구축하기로 약속했다.

2018년 8월 *스타스 앤 스트라이프스* 신문은 비숍(Bishop) 당시 호주 외무부 장관이 "삼국 파트너십은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기 위해 지원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오클랜드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미국 안보 분석가 폴 뷰캐넌(Paul Buchanan)은 *스타스 앤 스트라이프스*와 인터뷰에서 중국이 남태평양에 입지를 강화하면서 자금 지원이 이미 증가했다고 말했다.

뷰캐넌에 따르면 중국의 입지에는 수중 데이터 케이블과 가까운 신호 정보 기지 역할을 할 새로운 주 통가 중국 대사관과 중국이 피지 해군에 제공한 새로운 정찰 및 수로 측량선이 포함된다. (이 신문은 또한 또 다른 보도를 인용하여 중국이 피지 경찰에게 훈련과 차량을 제공했다고 전했다.)

태평양 지역 인프라에 지출해야 한다는 분석가들이 늘고 있다. 도쿄 타마대학교 초빙 교수 브래드 글로서만(Brad Glosserman)은 *스타스 앤 스트라이프스*와 인터뷰에서 "이 삼국 파트너십은 지역과 세계의 마음을 얻기 위한 경쟁이며 그렇지 않은 척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분석가들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남태평양 프로젝트가 성공했다는 주장도 반박했다. 글로서만 교수는 "많은 프로젝트가 효과가 없다"며 "중국이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는 생각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

조업
관리

남획이 태평양 섬 국가의 생활 방식, 번영은 물론
주권을 위협하고 있다.

로버트 T 헨드릭슨(**ROBERT T. HENDRICKSON**) 대령/미국 해안 경비대

참치는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주식이며 태평양 서부와 중부의 참치 지대에 흩어진 수많은 나라의 주요 경제 엔진이기도 하다.

회부터 참치 캔까지 오늘날 전 세계 참치 시장의 약 60퍼센트가 적도에서 북위 및 남위 5도 사이에 있는 참치 지대에서 나온다.

많은 태평양 섬 국가들은 특히 참치에 번영과 주권을 의존하고 있다. 키리바시의 경우 생선은 총 단백질 섭취량의 28.8퍼센트를, 동물 단백질 섭취량의 55.8퍼센트를 차지한다. 유엔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이 수치는 지역 내 다른 태평양 섬 국가에서 유사하다.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조업 수익은 키리바시 GDP의 64퍼센트, 투발루 GDP의 46퍼센트, 마셜제도 GDP의 32퍼센트, 미크로네시아 GDP의 24.4퍼센트를 차지한다. 더불어 통가 국민의 33퍼센트가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사모아의 경우 이 수치는 42퍼센트다.

불법 비신고 비규제 조업

남획으로 이들 나라의 미래 식량 안보와 경제적 주권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세계은행, 퓨 자선 신탁, 태평양 섬 포럼 어업국, 유럽 연합 등의 별도 연구에 따르면 어부들은 지역에 정해진 연간 참치 할당량의 30퍼센트 이상을 잡고 보고하지 않고 있다. 성체 어류를 과도하게 잡으면 어자원이 소진되고 산란이 급격히 감소할 수 있다.

인도 태평양 국가들은 이러한 위험을 인식하고 이 소중한 자원을 보호하고 지역을 안정시키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중서부태평양 수산 위원회와 태평양 섬 포럼 어업국은 지역 내 어류 개체 수를 관리하고 불법 비신고 비규제 어업을 통제하는 핵심 기관이다.

참치는 장거리를 이동하기 때문에 어자원 관리가 더욱 어렵다. 오늘 키리바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수영하는 참치가 내일이면 마셜제도의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공해 다른 곳에서 수영할 수 있다. 이렇게 사법권을 자유롭게 넘나들기 때문에 법 집행이 어렵다. 참치를 비롯한 많은 어류가 지역은 물론 세계적으로 남획되고 있다.

불법 비신고 비규제 조업은 지역을 넘어 세계에 긴장을 조성한다. 2016년 태평양 섬 포럼 어업국의 보고에 따르면 불법 비신고 비규제 조업으로 매년 태평양 섬 국가 전체 수익에 미화 6억 달러 이상의 손실이 발생한다. 키리바시 같은 나라의 경우 GDP가 미화 약 2억 달러인 것을 고려하면 이러한 손실은 상당한 규모다. 그린피스 뉴질랜드에 따르면 지역에서 잡힌 참치 중 20퍼센트만이 태평양 섬 어부가 잡은 것이다.

2018년 11월 파푸아뉴기니 포트모르즈비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 정상 회의에서 저신다 아던(**Jacinda Ardern**) 뉴질랜드 총리가 데이비드 티아보(**David Teaabo**) 키리바시 대표와 포즈를 취하고 있다. 로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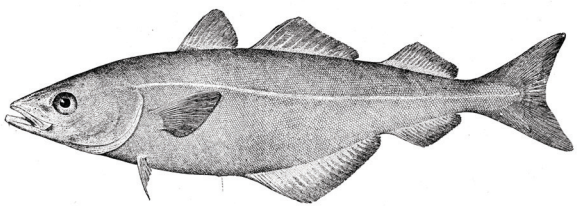
광범위한 파급 효과

그러나 조업은 식량 안보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지역 내 주민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자 경제적 주권의 기반이기도 하다.

수많은 사건에서 드러나듯이 건강한 어자원은 식량 안보, 경제 안보, 지역 안보와 직결된다. 식량 부족은 무수한 안정성 문제를 일으킨다. 대규모 인구 이주의 주요 원인이며 이로 인해 인신매매 조직 같은 국제 범죄 조직이 지역에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소말리아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해외 원양 어선의 불법 남획으로 어업이 붕괴하자 소말리아 어부는 아프리카의 뿔 해역에서 해적이 됐다. 1970년대 말 아이슬란드와 영국 사이에 어업권 분쟁이 일어났고 1990년대 말 캐나다와 스페인 사이에 비슷한 분쟁이 일어났다. 또한 남획으로 최근 남중국해에서 여러 동남아시아 국가와 중국이 어업권 분쟁을 벌이면서 긴장이 고조됐다. 일례로 중국은 베트남과 필리핀 어부들을 공격적으로 괴롭혔다.

어자원이 붕괴되면 많은 태평양 섬 국가에 경제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이들 나라는 경제를 어자원 건전성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사용하는 것과 같은 수표 및 채무 장부 외교 전술에 매우 취약하다. 이는 또한 해적, 폭력적인 극단주의, 국제 범죄 조직, 기타 불안정화 요소에 대한 취약성을 증가시킨다.



어자원 붕괴 사례 연구

"도넛 홀(Donut Hole)"의 중부 베링해 명태 사례를 살펴보자. 이 지역은 알래스카와 러시아 사이의 지중해보다 약간 큰 국제 수역에 있다. 러시아 및 미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 도넛 홀을 둘러싸고 있지만 이곳은 법적으로 국제 수역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나 조업할 수 있다. 여기에는 비료부터 생선 샌드위치까지 모든 것에 사용되는 명태가 풍부했다. 1983년부터 1993년까지 국제 어선이 도넛 홀의 명태를 끊임없이 낚았다. 1989년부터 1990년까지 명태 어획량은 절정에 이르러 140만 톤을 기록했다. 1990년부터 1991년까지 어획량은 겨우 30만 톤을 기록했다. 이듬해 명태 자원은 남획으로 붕괴했다. 가장 최근 조사를 실시한 2016년에도 명태 자원은 여전히 고갈되어 있다.

앞으로 방향

태평양 섬 국가 영해에서 발생하는 비신고 남획에 대처하기 위해 책임 있는 어업국들이 모여야 한다. 협력 지역 관리는 참치 지대의 지속 가능성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동맹국과 파트너는 효과적인 해양 거버넌스 구축과 지역 내 정치적 의지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국제 사회는 감시 및 승선 조사를 위한 역량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날렵한 최신 순찰선과 연계된 최신 첨단 감시 시스템은 기소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는 것이 입증됐다. 어획량 기록 및 환적 절차에 대한 중서부태평양 수산 위원회의 보존 및 관리 조치는 부족하다.

남획에 대처하기 위한 출발점은 수산 위원회의 책임 있는 어업국들이 한데 모여 어획량 기록을 규제하는 보존 및 관리 조치를 엄격히 실행하는 것이다. 더불어 수산 위원회는 공해에서 환적을 전면 금지하는 규제를 실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연안 국가들은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서 어획량 기록 및 환적에 대해 유사한 국내법을 채택하고 시행해야 하며 법을 위반하고 본질적으로 국가 수익을 탈취하는 불법 비신고 비규제 어부들을 적극적으로 기소한다는 정치적 의지를 가져야 한다.

많은 책임 있는 주요 강대국들이 이러한 새로운 남획 위기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예를 들어 뉴질랜드는 피지

2018년 10월 도쿄에 재개장한 도요스 시장에서 예비 구매자가 냉동 참치를 살펴보고 있다.
AP 통신

해역에서 3개월 동안 불법 비신고 비규제 조업 펄스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뉴질랜드 해군 순찰선을 배치하고 150여 차례 승선 조사를 실시했다. 미국과 지역 섬 국가 사이 11개 양자 십라이더(Ship-Rider) 조약으로 비슷한 작전이 가능하다. 미국은 십라이더 국가가 기소 역량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향후 역외 법적 지원도 구상하고 있다.

호주, 프랑스, 뉴질랜드, 미국은 수년간 태평양 섬 국가 및 영토와 협력하여 해양 영역 인식과 안보 역량을 구축해왔다. 일본과 캐나다도 이 무역 공간에서 활동하고 있다.

1988년 미국과 16개 태평양 섬 국가가 발효한 남태평양참치조약은 1993년과 2002년에 연장되어 30년 이상 유지되고 있다. 2016년 12월 참가국은 조약을 갱신하여 미국 어선들이 조약국의 생산적인 참치 조업 수역에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을 현대화했다. 국제 어업 협력 모델인 이 조약은 지역 조업 모니터, 통제, 감시 기준은 물론 조업 옵서버 및 데이터 보고 요건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됐다.

이러한 유형의 프로그램을 구축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다른 책임 있는 원양 어업국은 이 지역의 주요 지역 경제 동력인 참치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국의 불법 조업 및 환적 어선에 대해 더욱 엄격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참치 전망은 인도 태평양의 전반적인 미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태평양 섬 국가의 경제가 변함에 따라 지역 안보도 변한다. □

리더 개발을 위한

상호운용성

뉴질랜드 육군 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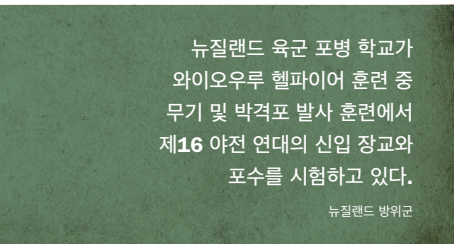
존 R 보스웰(JOHN R. BOSWELL) 소장/뉴질랜드 육군 참모총장

Hutia te rito o te harakeke, Kei whea te komako e ko? Ki mai ki ahau; He aha te mea nui o te Ao? Maku e ki atu, he tangata, he tangata, he tangata

아마 중심지가 사라지면 방울새는 어디서 지저귈 것인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내게 묻는다면 "그것은 바로 사람,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할 것이다.

하라케케, 즉 마오리족 고유의 아마(식물)를 은유로 사용하는 마오리 속담에 따르면 세상에서 아이들의 소리가 사라지면 (다음 세대) 인류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아마는 가족(*화나우*)을, 겉잎은 조상(*타푸나*)을, 속잎은 부모(*마투아*)를, 가장 안쪽 잎은 아기 (*리토* 또는 *페페*)를 상징한다. 겉잎만 자르고 아이를 보호하는 속잎은 남겨둔다.)

유럽인은 불과 200년 전에 뉴질랜드에 정착했지만 마오리족은 약 1,000년 전에 정착했다. 나는 조상 중에 마오리족이 없지만 유럽과 마오리 유산을 모두 반영하는 진화된 문화를 가진 육군에서 복무하고 있다. 군복, 훈련, 계급, 전통, 상징 등의 육군 활동 대부분은 영국에서 유래했다. 하지만 뉴질랜드 군인으로서 내 기질은 마오리 전사 정신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고 조직으로서 뉴질랜드 육군은 마오리 관행과 전통을 많이 수용했다. 1995년 뉴질랜드 육군은 공식적으로 뉴질랜드 내 부족 독립체로 인정되었으며 이후 전쟁의 신 부족이란 의미를 가진 *응가티 투마타우엔가* 라고도 불린다.



뉴질랜드 육군 포병 학교가 와이오우루 헬파이어 훈련 중 무기 및 박격포 발사 훈련에서 제16 야전 연대의 신입 장교와 포수를 시험하고 있다.

뉴질랜드 방위군

특히 미국 동료들에게 이것을 설명하는 이유는 뉴질랜드가 서구 민주주의 국가이고, 파이브 아이스 회원이고, 미국과 비슷한 교리, 전술, 기법, 절차를 사용하는 소규모 전문 방위군이지만 DNA가 같지 않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르게 생각한다. 개인, 리더, 직업 군인으로서 내게 중요한 것이 이곳 참석자들에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으며 내 우선순위는 때때로 다를 것이며 결과적으로도 다를 것이다.

이해 함양

따라서 지역 파트너와 협력이 중요한 복잡한 세계에 적합한 지역 리더를 육성할 때 인도 태평양에서 리더십 개발을 지원하는 담당자들은 우리에게 효과가 있는 것이 지역 파트너에게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개별 요건, 훈련 초점, 파트너의 학습 방식도 면밀히 이해해야 한다. 더불어 시간을 들여 이해해야만 우리가 지지하는 대상과 상호운용성을 비롯한 결과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개선할 수 있으며 우리가 상호 추구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지역에서 다른 군과 효과적으로 통합하려면 정수나 핵심 내용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관행과 절차를 지역 내 국가의 필요에 맞게 조정한 후 해당 국가와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협력할 수 있는 역량 있는 교관과 교육자가 필요하다. 다른 문화에 공감하고 시간을 들여 인도 태평양 동료와 참여하고, 상호 작용하고, 강력한 실무 관계를 구축하는 데 편안할 뿐만 아니라 관련성 있는 맞춤형 교육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는 교관이 필요하다. 뉴질랜드 육군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자.

과거 우리는 장교 경력 시작 시 뉴질랜드에서 공식 리더십 훈련을 제공하고 특히 부사관과 준위를

쿠물 리더십 프레임워크

포럼 스태프

이파푸아뉴기니 방위군은 2017년 리더 코칭, 교육, 멘토링을 강화하기 위한 체계를 출범했다. 이것은 파푸아뉴기니 방위군의 첫 번째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이다.

파푸아뉴기니 영자 신문 *더 내셔널*에 따르면 파푸아뉴기니 사령관 길버트 토로포(Gilbert Toropo) 준장은 "조직을 키우고 국가, 국민, 국익을 최대한 방어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쿠물 리더십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파푸아뉴기니 *포스트쿠리어* 신문에 따르면 토로포 준장은 2017년 12월 기념식에서 이삭 루파리(Isaac Lupari) 최고 대사와 솔란 미리심(Solan Mirisim) 국방부 장관과 함께 프레임워크를 출범시켰다.

토로포 준장은 2014년 파푸아뉴기니 고위 관계자들이 랄로키 선언에 서명하여 파푸아뉴기니 방위군의 가치에 바탕을 두고 "군 리더십 개발의 중추가 될" 리더십 프레임워크를 채택했다고 말했다.

디커스 에소(Dickers Esso) 중령은 뉴질랜드 방위군의 도움을 받아 프레임워크를 만들었다. *포스트쿠리어* 신문은 파푸아뉴기니 방위군 참모총장 레이 누마(Ray Numa) 대령과 기타 고위 지휘관으로 구성된 전문가 실무 그룹이 프레임워크를 지지했다고 보도했다.

2018년 8월 *포스트쿠리어* 신문과 인터뷰에서 파푸아뉴니기 방위군 지역 사령관 칼 래코네이(Carl Wrackonei) 대령은 파푸아뉴니기 방위군 리더십 개발이 파푸아뉴니기 방위군 사령관의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2018년 8월과 10월 파푸아뉴기니 방위군은 쿠물 프레임워크 아래 첫 번째 교육 세션을 실시했다.

뉴질랜드 방위군 네이슨 터너(Nathan Turner) 하사와 알렉스 프레이저(Alex Fraser) 하사가 소위부터 준장까지 리더를 대상으로 한 과정을 진행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포스트쿠리어 신문은 래코네이 대령이 첫 번째 과정에서 참가자들이 "신입 장교들이 자신의 레벨에서 리더십 메시지를 발휘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좋은 플랫폼을 제공하는 도구를 확보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대상으로 한 일부 과정의 몇몇 접점을 제외하고 현장 체험을 통해 다음 단계에서 지휘할 인재를 육성했다.

현재 환경에서 지휘할 인재를 더 잘 준비시키기 위해 리더십 훈련과 경력 발전을 더욱 적절히 연계하고 리더십 개발을 훈련 과정에 더 잘 통합하는 프레임워크를 채택했다. 이러한 변화는 경력 전반에 올바른 도구를 갖추고 부하 대원의 사기를 높이고 지휘하는 자립적이고 강한 리더로 구성된 군대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다. 프레임워크는 자기 이끌기, 팀 이끌기, 리더, 시스템, 역량, 통합 역량 이끌기, 조직 이끌기 단계로 진행한다.

이 단계는 신입 대원부터 육군참모총장까지 모두 포함한다. 이들은 뉴질랜드 육군 경력 발전 모델에 연계되어 있으며 교실 이론, 360도 보고, 야외 체험 학습 형태를 취한다. 중요한 점은 이 프레임워크가 독립형 리더십 과정과 더불어 리더십 교육을 모든 지휘 및 전문가 과정에 통합하는 기반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병 지휘관 과정의 리더십 목표를 팀 이끌기 레벨에 두는 한편 전투 지휘관 과정을 시스템 이끌기 단계의 과정과 연계한다. 여단장으로서 나는 2018년 8월 조직 이끌기 과정에 참가했다.

이 시스템은 계급, 직위 또는 경험에 관계없이 모든 수준에서 리더를 개발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육군 전반에 리더십 교육을 위한 공통 기준점을 제공한다. 더불어 우리가 지역 파트너의 자체 리더십 개발에 제공할 수 있는 지원에 대해 지역 파트너와 대화하는 출발점이 된다. 다양한 학습 결과와 파트너가 추구하는 결과를 검토한 후 개인 리더십 역량을 개선하고 파트너와 상호 작용 및 작전 방법을 강화하는 교육 지원 패키지를 개발한다.

파푸아뉴기니와 협력

2017년 파푸아뉴기니는 리더십 개발부를 설립했다. 지난 8년 동안 뉴질랜드 방위군은 파푸아뉴기니와 협력하여 일련의 교류 및 과정 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쿠물 리더십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파푸아뉴기니의 극락조 쿠물은 국민의 리더십, 탁월함, 야망을 상징한다. 뉴질랜드 방위군은 파푸아뉴기니와 관계를 존중하고 문화를 인정하는 쿠물 리더십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2018년 4월 25일 웰링턴 푸케아후 국립 전쟁 기념 공원에서 열린 앤잭 기념일 중 뉴질랜드 군인들이 도열해있다. 앤잭 기념일은 제1차 세계대전 중 갈리폴리 전투에 참전했던 호주와 뉴질랜드 육군 대원을 기리는 날이다. GETTY IMAGES

쿠물 리더십 프레임워크는 뉴질랜드 방위군 리더십 개발 프레임워크를 모방했지만 리더십 레벨, 윤리 구조, 가치 요소 면에서 파푸아뉴기니만의 특징이 있다. 파푸아뉴기니 방위군은 최근 역량 이끌기 과정을 설계하고, 개발하고, 제공하여 쿠물 리더십 프레임워크를 검증하고 방위군 리더십을 실질적으로 개선했다. 방위군 리더십 개발부를 성공적으로 구축한 후 우수한 교육을 제공한 것은 강력한 파트너십이 어떤 것을 이룰 수 있는지 보여준다.

뉴질랜드의 상호 지원 프로그램은 태평양과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에 이러한 유형의 리더십 교육을 제공한다. 프로그램은 파푸아뉴기니에 보낸 것과 같은 다양한 교육팀, 태평양 섬 국가에 지원 담당자 영구 배치, 뉴질랜드에서 열리는 지휘, 리더십, 전문가 과정 중 태평양 및 동남아시아 군 대표자 교육에 자금을 지원한다. 우리는 파트너 국가가 뉴질랜드 내 제3의 기관에 참석하는 것도 지원한다. 이러한 상호 작용으로 상호운용성을 증진한다.

결국 사람이다

연설을 시작할 때 인용했던 마오리 속담은 인생에서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한다. *헤 탕가타(He tangata), 헤 탕가타(He tangata), 헤 탕가타(He tangata).* 그것은 바로 사람,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뉴질랜드 육군은 지역 동반자에 제공하는 지원을 통해, 나날이 복잡해지는 세계에서 뉴질랜드, 파트너, 동맹국과 협력하는 지역 리더 개발을 지원하며 거대한 "상호운용성 방정식"에서 "사람"을 분명히 목표로 하는 결과를 추구한다.

이와 동일하게 중요한 것은 지역 전반의 리더들과 맺은 전문적인 관계 네트워크다. 뉴질랜드 리더들은 경력을 통해 발전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동료를 갖게 되고 이들은 평시와 위기 시 모두 귀중한 연락책이 된다. 종종, 지역 참여를 통해 구축한 관계로 관료주의를 극복하고, 아시아 및 태평양 파트너와 더욱 효과적으로 통합하고, 지역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함께 활동할 수 있다. 특히 상호운용성 관점에서 이러한 결과에서 얻은 가치는 분명하다. □

이 기사는 2018년 5월 24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지상군 태평양 콘퍼런스 "복잡한 세계를 위한 지역 리더 개발" 패널 중 존 R. 보스웰 소장이 한 연설을 각색한 것이다.

평화 유지

포럼 스태프 | 사진: AFP/GETTY IMAGES

스리랑카가 국가, 지역, 글로벌 평화유지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육군 참모총장 마헤시 세나나야케 중장과 포럼 인터뷰

2

2017년 6월 마이트리팔라 시리세나(Maithripala Sirisena) 스리랑카 대통령은 마헤시 세나나야케(Mahesh Senanayake)를 육군 참모총장으로 임명하며 중장으로 진급시켰다.

세나나야케 중장은 스리랑카 보안군이 30년간 벌인 타밀일람 해방 호랑이와 전투에 거의 모두 참가했다. 그는 적을 상대하며 용맹과 용기를 인정받았다. 그는 전투에서 솔선수범하여 보인 용기와 영웅적인 행동에 대해 라나 위크라마 파다카마 훈장을, 배치 중 적을 상대로 여러 차례 거둔 뛰어난 성과에 대해 라나 수라 파다카마 훈장을, 완벽한 규율과 근무 기록으로 적어도 15년 이상 복무하며 헌신한 것에 대해 우투타마 세바 파다카마 훈장을 받았다.

세나나야케 중장은 콜롬보 아난다대학교를 졸업하고 1981년 10월 스리랑카 육군에 입대했다. 그는 훈련을 마친 후 공병대에 합류했다. 그는 또한 인도 자오할랄 네루대학교에서 토목 공학 학사 학위를 받았고 미국 육군 지휘참모대학교를 졸업했다.

많은 훈장을 수상한 군 경력 내내 그는 다양한 지휘, 참모, 교육직을 거쳤다. 그는 특수 연대 중앙 사령관, 바부니야 제211 보병 여단 사령관, 특수 여단 사령관, 자프나 바라니 제52사단 사령관으로 복무했다. 더불어 그는 제52사단 연대장직과 가장 중요한 전쟁 시기 중 자프나 특수 부대 본부 여단장직을 비롯하여 참모직도 수행했다. 그는 사푸가스칸다 육군 지휘참모대학교 교장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2016년 그는 자프나 특수 부대 사령관으로 임명되어 반도 내 흩어진 유민들을 정착시키는 데 큰 공헌을 했다. 사회와 정부는 화해 과정에서 그가 보여준 뛰어난 활동을 표창했다. 2017년 3월 그는 스리랑카 육군 참모총장으로 임명됐다. 그는 특수 연대 연대장도 겸하고 있다.

스리랑카 육군의 가장 큰 성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009년 30년 내전을 성공적으로 끝낸 후 국내 테러리즘을 줄이고 테러에 대응하는 새로운 이론과 전략을 개발했습니다. 종전 후 9년 차에 접어들었고 국내에서 단 한 번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2017년 7월 콜롬보에서 열린 취임식 중 스리랑카 육군 참모 총장 마헤시 세나나야케 중장이 사열을 받고 있다.

평화 유지 접근법이 성공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포괄적인 계획을 사용했고 과거 반군을 사회에 통합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우리는 재활(Rehabilitation), 재건(Reconstruction), 재통합(Reintegration), 정착(Resettlement), 화해(Reconciliation)를 의미하는 종합 "5R" 개념을 사용합니다. 전략의 가장 큰 에너지로서 육군은 스리랑카를 정상화한 이 개념에 완전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유지하는 데 스리랑카는 어떤 역할을 할 계획입니까?

지역 안보를 위해 스리랑카는 평화를 유지해야 하며 지역이 평화로워야 합니다. 경제 발전과

지역 평화는 상호 보완 관계에 있습니다. 스리랑카는 지역 내 많은 국가와 주요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대표적인 파트너로 인도와 파키스탄을 들 수 있습니다. 중립 파트너로서 스리랑카는 태평양을 연결하는 데 최고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들 나라와 내부적으로 대화를 유지해야 합니다. 스리랑카 국방부는 스리랑카가 합동 훈련에 참여할 때마다 계획부터 육해공군을 연결하고 조율합니다.

국제평화유지활동에서 스리랑카의 역할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시겠습니까?

스리랑카는 오랫동안 콩고민주공화국, 아이티, 레바논, 말리, 남수단, 동티모르, 서사하라 같은 나라의 유엔 평화유지 임무에 군대를 파병했습니다. 최근 이러한 임무에 더 많이 기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현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레바논, 남수단에서 임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병, 옵서버, 참모 장교 같은 다양한 군 역량을 공급합니다. 남수단의 경우 레벨 II 병원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내전이 오래전에 끝났습니다. 앞으로 스리랑카 육군은 어떻게 변할까요?

현재 육군 병력은 20만 명입니다. 2020년 및 2025년 계획을 발표했지만 그렇다고 규모를 축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숫자는 바뀔 수 있습니다. 적절한 규모를 달성하여 육군 각 부대에 적용되는 국가 무결성을 유지할 것입니다. 육군을 이용하여 국가 재건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기여도 늘릴 것입니다.

내전 후 국가를 재건하는 데 육군의 역할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시겠습니까?

육군은 스리랑카 국민과 매우 긴밀히 관계되어 있습니다.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 다시 전쟁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육군을 세 개로 분할했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 전쟁에 대비하는 전투 군입니다. 두 번째 요소는 국가 재건입니다. 건설, 농업, 관개 프로젝트를 통해 국가에 환원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을 수리하고 각 대원이 보병이 아니라 산업 전문가가 된다는 점에서 국가 재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요소는 육군과 스포츠를 관리하고 국가 재건 과정을 주도하는 것입니다.

육군은 22년 동안 체육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스리랑카 노동력을 육군이 이끌 수 있습니다. 규율을 갖추고 실행할 수 있는 훈련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국가 역량을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스리랑카가 직면한 가장 큰 안보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협 기반 육군에서 역량 기반 육군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부대 힘과 훈련을 유지하고 내부 또는 외부 침략과 자연재해에 대응할 장비를 준비할 것입니다. 또한 마약 밀수, 인신매매, 사이버전 같은 비재래식 위협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위협을 직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섬 국가로서 다른 나라에서 확산된 위협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위협의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리랑카는 비재래식 위협 발사대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동쪽에 무슬림이 다수인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스리랑카는 열려있습니다. 관광지이기 때문에 누구나 찾아와서 위협 활동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이버전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국방부 지시에 따라 삼군 전반에 걸쳐

왼쪽: 2006년 아이티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는 스리랑카 대원들이 투표 자료 배포를 돕고 있다.

2016년 5월 수도 콜롬보 외곽 카두웰라에서 스리랑카 육군 구조팀 대원이 홍수를 뚫고 여성을 안전한 장소로 옮기고 있다.

합동 작전용 사이버 부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삼군 합동 작전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모든 정부 기관이 협력하여 사이버 부대를 구성할 것입니다.

지금은 문제가 없지만 앞으로 그런 위협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2018년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개최된 제6차 태평양 지상군 (LANPAC) 연례 심포지엄 및 박람회에서 논의된 과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회의에서 합동 작전과 다자간 작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늘날 도전과 상황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한 나라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 나라가 협력하여 지역과 글로벌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합동 작전을 펼쳐야 하지만 다자간 접근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전쟁은 많은 면에서 정치의 연장선 상에 있습니다. 각국의 정치적 의제가 간섭할 수 있습니다. 국민이 누려야 할 진정한 평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편협한 이념에 빠지게 됩니다. 특히 정보 공유 면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협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정보가 공유되지 않으면 어떠한 군에도 큰 문제가 됩니다. 합동 훈련만 문제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지능 문제이기도 합니다. 국민을 교육하여 우리는 인간이며 계급, 종교, 기타 다양한 것으로 나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시켜야 합니다. 지역 협력이 안보에 중요하다는 것을 교육해야 합니다.

스리랑카 국민은 미국 인도 태평양 사령부의 중요성을 이해합니다. 국가로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미국 인도 태평양 사령부와 협력하게 되길 바랍니다.

포럼 독자들에게 전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이웃은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이웃을 친구로 유지하고 싶고 모든 나라가 친구이며 이웃끼리 협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들여 지역 내 모든 군대가 우정을 쌓고 다자간 접근법의 중요성을 진심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

인도 잠수함 현대화

2018년 1월 31일 뭄바이 마자곤 조선소에서 열린 진수식 후 인도 해군의 세 번째 스코르펜급 잠수함 카란지호가 아라비아해로 출항할 준비를 하고 있다. AFP/GETTY IMAGES

자체 생산된 스코르펜급 잠수함 함대가 기념식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사로시 바나(SAROSH BANA)

2017년 12월 8일 인도 해군은 잠수함 진수식을 열어 잠수함 함대 창설 50주년을 기념했다. 인도가 처음 자체 생산한 스코르펜급 잠수함 INS 칼바리호 진수식에는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도 참석하여 이 날을 기념했다.

인도양의 무시무시한 포식자 호랑이 상어의 이름을 딴 INS 칼바리호는 뭄바이 소재 국영 마자곤 조선사가 건조 중인 61.7미터 1,565톤 디젤 전기 공격용 잠수함 여섯 척 중 첫 번째 잠수함이다. 이 사업은 현재 네이벌 그룹으로 사명을 바꾼 프랑스 조선업체 DCNS와 기술 이전 계약에 따라 진행 중이다. 프로젝트 75라 명명된 이 프로그램은 2006년 12월 시작됐으며 칼바리호는 9년 후 진수됐다. 이후 조정 및 시험에 2년이 더 걸렸다.

칼바리호의 취역은 동일한 이름의 잠수함이 해군에 인도된 1967년 12월 8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칼바리호는 해군 잠수함 함대를 구성한 소련 폭스트로트급 디젤 전기 초계 잠수함 여덟 척 중 처음 도입된 잠수함이었다. 레닌그라드(현재 상트페테르부르크) 수도메크 조선소에서 건조된 잠수함 여덟 척은 이후 모두 퇴역했다. 두 번째 스코르펜급 잠수함도 역시 두 번째 폭스트로트급 잠수함에서 이름을 가져와 칸데리호로 명명됐다. 칸데리호는 2017년 1월 진수되어 해상 시험을 거치고 있으며 세 번째 카란지호는 2018년 1월 31일 진수됐다. 나머지 잠수함 세 척은 다양한 생산 단계에 있으며 2020년까지 함대에 편입될 예정이다.

잠수함 환생

인도 해군은 퇴역한 함선과 잠수함을 이름을 통해 환생시키는 전통이 있다. 첫 번째 칼바리호는 거의 30년을 활동한 후 1996년 5월 퇴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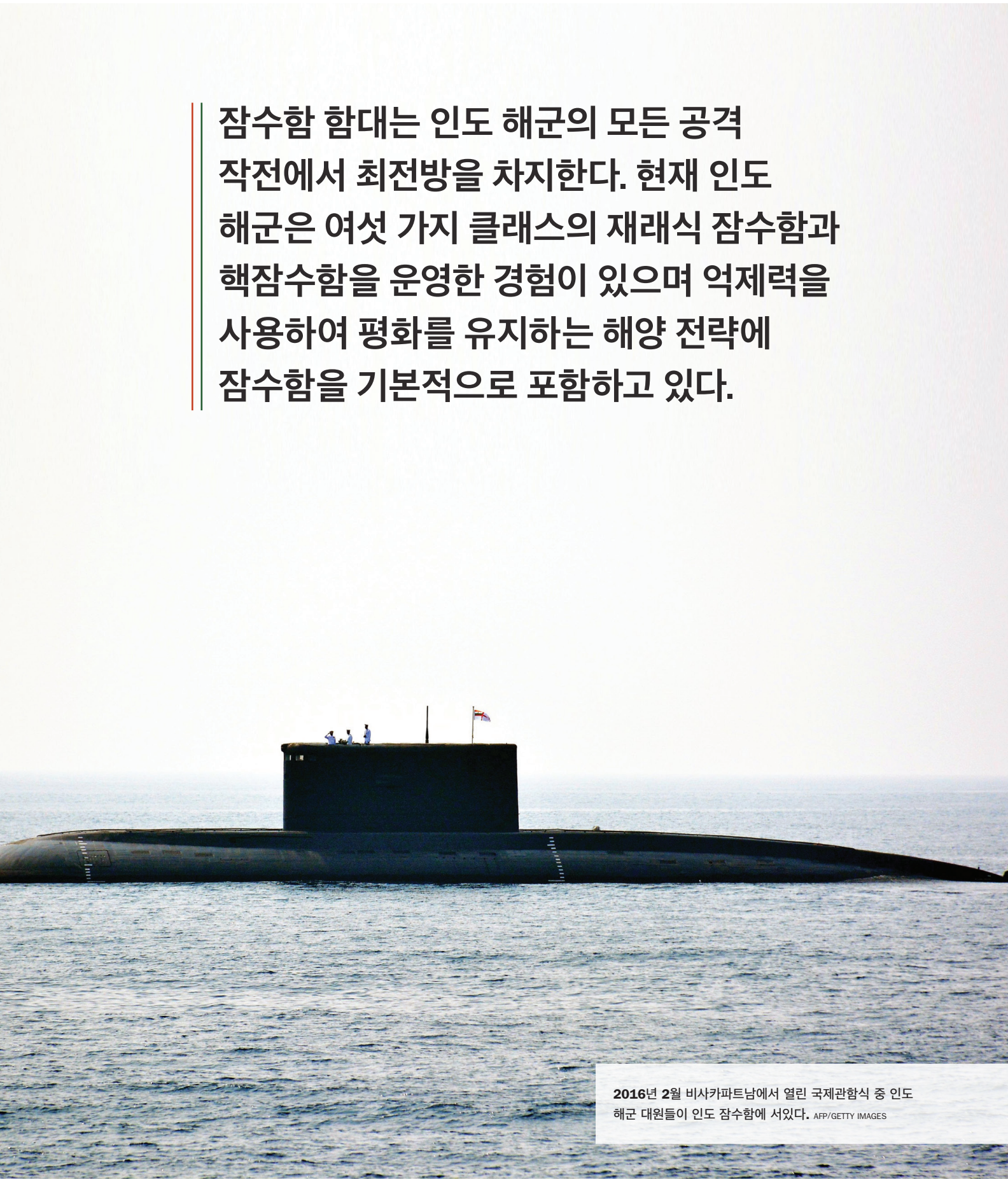
인도군 최고 사령관도 역임하고 있는 람 나트 코빈드(Ram Nath Kovind) 인도 대통령은 잠수함에 군대 최고의 영예인 대통령 기를 하사했다. 2017년을 "잠수함의 해"로 기념한 인도 해군은 1951년 5월 27일 삼군 중 처음으로 이 영예를 받았다.

마자곤 조선사 회장 겸 상무 이사 라케시 아난도 예비역 준장은 인도 해군이 칼바리호를 도입한 것에 대해 "칼바리호는 모든 작전 측면에서 우수하기 때문에 수중전의 판도를 바꾼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시운전 전 모든 무기를 발사했다고 칭찬하며 스코르펜급 첨단 기술에 첨단 음소거 기법 및 낮은 방사 잡음 같이 뛰어난 스텔스 성능, 유체 역학적으로 최적화된 형태, 정밀 유도 어뢰의 치명성, 튜브 발사 대함 미사일이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와 해군 당국은 프로젝트 75의 데이터가 광범위하게 유출되어 인도의 민감한 잠수함 프로그램이 훼손되거나 국가 안보가 흔들렸다는 *더 오스트레일리언* 신문의 2016년 8월 보도를 부인했다. 당국은 보도 효과를 잠재우기 위해 유출된 총 2만 2,400페이지 문서가 주로 2011년 작성된 일반 데이터와 정보로 작성됐으며 이후 수정됐다고 주장했다. 2016년 4월 호주는 DCNS(네이벌 그룹)와 500억 호주 달러(미화 380억 달러) 규모의 잠수함 12척 건조 계약을 체결했으며 정보 유출을 산업 스파이 사건으로 간주했다.

잠수함 함대는 인도 해군의 모든 공격 작전에서 최전방을 차지한다. 특히 1971년 인도 파키스탄 전쟁 중 훌륭한 역할을 했다. 벵갈만과 아라비아해의 동부 및 서부 해역 작전에 잠수함 네 척이 투입되어 적의 작전을 제한했다. 현재 인도 해군은 여섯 가지 클래스의 재래식 잠수함과 핵잠수함을 운영한 경험이 있으며 억제력을 사용하여 평화를 유지하는 해양 전략에 잠수함을 기본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잠수함 함대는 인도 해군의 모든 공격 작전에서 최전방을 차지한다. 현재 인도 해군은 여섯 가지 클래스의 재래식 잠수함과 핵잠수함을 운영한 경험이 있으며 억제력을 사용하여 평화를 유지하는 해양 전략에 잠수함을 기본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2016년 **2**월 비사카파트남에서 열린 국제관함식 중 인도 해군 대원들이 인도 잠수함에 서있다. AFP/GETTY IMAGES

2016년 4월 프랑스 라몽타뉴 현재 네이벌 그룹으로 사명이 바뀐 공장에서 스코르펜 잠수함의 프로펠러를 보고 있다.
로이터

장애물 극복

인도 잠수함의 50년 역사는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4년 전 감사원은 전함 자체 건조에 끊임없이 시간이 지연되고 비용이 초과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인도 최고 회계 담당자는 마자곤 조선사가 수용 불가 품목의 비용을 추가했다고 비난했다. 또한 국방부와 인도 해군 사이에 예측력과 의사소통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프로젝트 75는 일정보다 5년 지연됐으며 원 계약액인 미화 26억 3000만 달러는 미화 38억 달러로 증가했다. INS 칼바리호는 2012년 취역 예정이었다. 시간 지연과 비용 초과 이외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스코르펜 잠수함에는 2002년부터 국방 연구소가 개발 중인 공기불요추진 시스템을 장착할 예정이었으나 장착하지 못하고 장기 지연되면서 생산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공기 불요 추진 시스템은 비핵잠수함의 수중 지구력을 3~5배 향상시킨다. 공기 불요 추진 시스템이 없는 잠수함은 수중에서 2~3주밖에 활동하지 못한다. 현재 재래식 잠수함에 공기 불요 추진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지만 이러한 중요 역량의 부족으로 인도에 작전 제약이 발생한다. 인도 해군은 인도가 처음 자체 제작하여 2016년 8월 취역시킨 탄도 미사일 탑재 핵 추진 잠수함 INS 아리한트호와 INS 칼바리호를 포함한 잠수함 15척으로 구성된 낡은 함대로 골치를 앓고 있다. 잠수함 일부는 퇴역 직전이며 언제라도 작전할 수 있는 잠수함은 최대 10척이다. 잠수함 함대는 칼바리호, 아리한트호, 미화 9억 달러 임대 계약으로 10년간 러시아에서 임대한 핵 추진 잠수함 외에 10척에서 8척으로 감소한 3,100톤 신드후호시급(러시아 킬로급) 잠수함과 1,850톤 시슈마르급 독일산 HDW 타입 209 잠수함 네 척으로 구성되어 있다. 잠수함의 설계 작전 수명은 약 25년이지만 킬로급 잠수함 8척은 이미 생산된 지 23년에서 28년이 지났으며 HDW급 잠수함도 생산된지 20년에서 28년이 지났다.

최신 킬로급 잠수함 중 1997년 취역한 INS 신드후락샤크호가 2013년 8월 뭄바이 계류장에서 폭발로 파괴됐다. 이 사고로 장교 3명과 승무원 15명이 사망하며 인도 해군 최악의 평시 참사로 기록됐다.

2017년 10월 베트남과 싱가포르도 참가한 4일간의 우호 투어 중 멀티로켓 대잠수함 발사대를 탑재한 INS 카드매트호가 필리핀 마닐라에 정박할 준비를 하고 있다.
AP 통신

극복해야 할 과제

아프리카의 뿔부터 말라카 해협과 남중국해까지 활동 범위를 통합하려는 지역 해양 강대국으로서 인도는 잠수함 전력을 강화하고 항공모함 전단을 확대하려 한다. 인도는 전력을 보장하기 위해 1999년 내각 안보 위원회가 승인한 30년 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잠수함 24척을 새로 도입할 계획이다. 이 중 절반은 2012년까지 외국과 협력으로 제작했고 나머지 12척은 자체 제작할 계획이다.

스코르펜 프로젝트의 시간 및 비용 초과는 목표 달성이 여전히 힘들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라비아해, 벵갈만, 인도양과 인접한 7,615킬로미터의 거대한 해안선을 가진 인도에 개발 지연은 전략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인도의 안다만 제도와 니코바르 제도 중 하나는 인도 본토보다 버마, 태국, 인도네시아에 더 가깝다. 해로를 이용하여 국제 무역 90퍼센트 이상을 처리하는 인도는 해군에 중요한 해상 통신선을 지키는 임무를 맡겼다.

동급 핵 추진 잠수함 세 척 중 처음으로 미화 29억 달러가 투입되어 인도 국내에서 개발 및 건조된 INS 아리한트호는 1998년에 구상됐으나 2009년 7월에야 착수됐고 7년 이상이 지난 후에 취역했다. 러시아 엔지니어들이 아쿨라 1 잠수함 설계를 바탕으로 개조된 이 프로젝트를 도왔다. 6,000톤 INS 아리한트호는 민군 파트너십을 통해 완성됐다. 83메가와트 원자로는 바바 원자력 연구소가 설계했고, 선체는 라슨 앤 투브로사가 제작했고, 조립은 비사카파트남 해군 프로젝트 총국 조선소가 수행했다.

INS 아리한트호는 1톤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사거리 700킬로미터의 인도 자체 제작 전함/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인 사가리카 K-15 12대를 탑재하고 있다. 110미터 길이 아리한트호의 승무원 100명은 러시아 전문가가 교육했다.

2012년 4월 인도 해군은 핵 추진 공격용 잠수함의 운영 및 훈련 경험을 위해 10년 조건으로 러시아에서 아쿨라 II급 잠수함을 임대했다. 승무원 73명이 운용하는 이 8,140톤 잠수함은 INS 차크라 II로 명명된 후 사령관 잠수함 기지이기도 한 비사카파트남에 배치됐다. 작전 기간 100일, 최고 속도 30노트, 잠수 깊이 600미터의 이 잠수함은 어뢰관 8개가 있지만 임대 계약에 따라 핵탄두를 탑재할 수 없다. 당시 소련은 1988년부터

1991년까지 비슷한 조건으로 인도 해군에 아쿨라 I급 잠수함을 임대했고 인도 해군은 이를 INS 차크라로 명명했다.

지역 군비 증강

인도와 전쟁을 치른 적이 있는 이웃 국가 파키스탄과 중국이 수중 전투력을 꾸준히 증강시키고 있는 가운데 인도는 이들과 보조를 맞춰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탄도 미사일 탑재 핵 추진 잠수함 네 척, 핵추진 공격용 잠수함 여섯 척, 공격용 잠수함 53척으로 구성된 대형 함대를 가진 중국은 장거리 핵무장 잠수함을 통해 강력한 해양 핵 억제력을 배치하고 있다. 미국 국방부에 따르면 사거리 8,000킬로미터의 1톤 핵탄두를 발사할 수 있는 JL-2 미사일 12대로 무장한 다섯 번째 탄도 미사일 탑재 핵 추진 잠수함이 건조될 수 있다.

중국은 또한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에 잠수함을 판매하고 있다. S20 디젤 전기 잠수함 8척을 파키스탄에 판매 중이며 총액은 미화 4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 사이로 추정된다. 첫 번째 네 척은 카리치에 훈련 센터도 건설할 중국 조선공사가 건조하여 2023년까지 납품할 예정이고 나머지는 카라치 조선 및 엔지니어링 공사가 2028년까지 조립할 것이다. 파키스탄 해군은 1990년대 구입한 아고스타 90B(칼리드급) 잠수함 세 척과 1970년대 말 생산된 아고스타 70s(하쉬매트급) 잠수함 두 척을 이미 운영하고 있다.

방글라데시는 미화 1억 9,300만 달러 계약을 통해 중국에서 타입 035G 밍급 디젤 전기 잠수함 두 대를 조달하고 있다. 이들 잠수함은 방글라데시 해군 최초의 잠수함이 될 것이며 2014년 3월 셰이크 하시나(Sheikh Hasina) 방글라데시 총리가 지적한 것처럼 해군을 "3차원" 군대로 변화시킬 것이다. 영자 신문 *타카 트리뷴*에 따르면 그는 "잠수함 기지 건설 문제를 처리 중이다"고 덧붙였다.

느린 의사 결정도 인도가 잠수함 건조 전문 지식을 확보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시슈마르급 HDW 잠수함 네 척을 확보하는 이보다 앞선 프로그램에서 첫 번째 두 척은 킬에서 HDW가 건조하여 1986년 인도 해군에 납품했지만 나머지 두 척은 마자곤 조선사가 건조하여 1992년과 1994년에 취역시켰다. 마자곤 조선사는 미화 1,800만 달러를 투자하여 잠수함 건조 인프라를 만들었으나 1994년 이후 사용하지 않았다. 이와 더불어 독일 HDW 시설의 많은 인도 엔지니어와 인도 해군 엔지니어 및 감독관에게 이전된 교육과 기술도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졌다. 마자곤 조선사는 2005년 스코르펜 건조 계약을 확보한 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다.

건조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통합 건조 생산 역량을 확대하기 위해 마자곤 조선사는 2014년 미화 1억 3000만 달러 규모의 마즈독 현대화 프로젝트를 통해 새 시설을 건설하고 잠수함 두 척을 동시 건조하기 위해 미화 3,500만 달러 규모의 하부 섹션 조립 공장을 추가로 마련했다.

프로젝트 75 전망

프로젝트 75 인디아는 규모가 미화 120억 달러이며 해외 협력 업체의 절충 교역과 기술 이전 범위에 따라 비용이 추가 상승할 수 있다.

인도 해군은 네이벌 그룹에 스코르펜 개조 모델에 대해, 독일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즈에 타입 214에 대해, 스웨덴 사브 코쿰에 A26에 대해, 러시아 루빈 해양 엔지니어링 설계국에 아무르 1,650에 대해 정보를 요청했다. S-80급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됐던 스페인 나반티아와 소류 잠수함을 공동 생산한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과 가와사키 중공업은 입찰 초기에 참여하려 했으나 포기했다.

프로젝트 75 인디아는 인도 국내 민간 또는 공영 조선소에서 공격용 잠수함 여섯 척을 건조해야 하고 해외 기술 파트너와 협력하여 현대적인 재래식 잠수함을 건조할 수도 있다. 이들 잠수함에는 공기 불요 추진 시스템과 지상 공격용 순항 미사일을 장착되고 인도 국내 생산 무기 및 센서와 호환될 것이다. 공식 입찰 제안서가 발행된 후 기술 및 상업 제안서를 제출해야 하는 네 개 입찰사의 답변에 따라 기술 매개 변수가 정의될 것이다.

계약자 선정 과정은 약 2년이 걸릴 것이며 첫 번째 잠수함은 계약 체결 후 8개월 뒤에 시작될 것이다. 기술 이전으로 조선소는 물론 해군 설계국의 자체 설계 역량이 강화될 것이다. 잠수함은 인도 해군 작전 요건에 맞게 도입된 변경 및 개조 사항을 통합하면서 기존 설계를 수정할 가능성이 높다.

인도는 해저 패권을 회복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더 많은 노력, 정치적 의지, 잠수함 함대를 상당한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할 것이다. □

이 기사는 *비즈니스 인디아* 매거진 2018년 1월 29일~2월 11일 호에 처음 등장했다.

전략적 지역 협력

인도와 인도네시아가 안보를 위해 연결을 강화하고 있다.

비나이 카우라(VINAY KAURA)

인도와 인도네시아는 오랫동안 역사와 문화적으로 연결됐지만 전략적 파트너십은 최근에 발전했다. 양국이 공유하는 다양한 우려 중에는 중국의 빠른 부상과 해양에서 중국의 의도가 있다. 2014년부터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는 동방 정책의 일환으로 많은 동남아시아 국가와 관계를 강화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샹그릴라 대화에서 첫 연설을 앞두고 2018년 5월 말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며 이를 과시했다.

인도는 더 이상 동쪽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동쪽으로 행동하여 지역 패권 균형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자 한다. 인도 태평양 협력의 본질과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인도의 역할이 아니지만 인도는 논의와 실험을 통해 협력 강화가 상호 안보 이해에 도움이 되는 영역을 찾을 수 있다. 루후트 판자이탄(Luhut Pandjaitan) 인도네시아 해양부 장관은 "인도와 인도네시아 관계는 아시아 패권 균형에 중요하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도 중국이 현재 적대적인 궤도를 더욱 강력히 추진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것에 인도와 같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인도 정부의 인도 태평양을 중심으로 인도와 전통적인 해양 이웃 국가를 연결하는 시도는 인도양과 태평양 사이의 가장 분주한 해로 중 하나인 말라카 해협을 통해 사람, 상품,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여 규칙 기반 자유 국제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항행의 자유, 항구 인프라 가용성, 방해받지 않는 시장 접근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모디(Modi) 인도 총리가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주 목적은 양국이 가까운 해양 이웃임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모디 총리와 조코 조코위 위도도(Joko Jokowi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인도 인도네시아 관계를 포괄적인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격상시키기로 합의했다. 양국 정상의 공동 성명서는 " 주권 및 영토 완전성, 국제법, 특히 유엔해양법협약, 항행의 자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지지하는 "자유롭고, 개방적이고, 투명하고, 규칙에 기반을 두고, 평화롭고, 번영하고, 포용적인 인도 태평양을 달성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조코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를 해양 강국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해양 주권에 열정적이다. 따라서 항행의 자유를 지켜야 한다고 반복하여 강조한 것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치열하게 영유권 분쟁 중인 중국을 겨냥한 것이 분명하다. 인도네시아는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전혀 영유권 분쟁 중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나투나 제도 주변 조업권과 관련하여 중국과 충돌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2016년 중국과 인도네시아 해군이 충돌한 며칠 뒤 나투나 제도 인근 해상 전함에서 내각 회의를 주재한 조코위 대통령의 극적인 제스처는 중국에 대한 결의라고 여겨졌다.

인도네시아는 중국이 주도하는 일대일로 정책을 인도처럼 강하게 반대하지 않지만 중국이 기대하는 것만큼 지지하지도 않는다. 정상 회담 후 모디 총리는 인도의 동방 정책과 지역 내 모두를 위한 안보 및

인도는 아세안 회원국 중심으로 인도 태평양에 자유롭고 개방적인 지역 안보 구조를 보존하려 한다.
AP 통신

성장을 조코위 대통령의 야심찬 해양 지렛목 정책과 연계하려 했다.

과거 인도 인도네시아 해양 협력은 주로 양국 합동 순찰, 해적 단속 순찰, 수색 및 구조 훈련에 국한됐다. 따라서 양국이 함께 벵갈만부터 말라카 해협까지 입구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양국은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인도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이 진행하는 말라카 해협 순찰에 참여하는 데 관심을 보이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봐야 한다. 그러나 인도가 참여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2018년 5월 발리 기술 전문가 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뤘지만 인도가 말라카 해협 순찰을 세부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금세 드러났다. 더 이상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국 정상의 공동 성명은 2018년 5월 회의가 " 해양 안보에 관한 전략적 기술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했다"고만 언급했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의 사실상 리더다. 지역 내 안보 환경이 미중 대결로 나날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인도네시아는 아세안이 인도 태평양 지역 개념화 및 진화의 중심에 서길 바란다. 조코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의 인도 태평양 개념을 "개방적이고, 투명하고, 포용적이고, 대화 습관을 고취하고, 협력 및 우정을 증진하고, 국제법을 준수하는 것" 으로 설명했다. 모디 총리의 인도 태평양 비전도 매우 비슷하다. 그는 인도가 미국의 리더십이 없이도 "아세안 중심"으로 아시아에서 자유롭고 개방적인 지역 안보 구조를 보존하는 것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인도는 나날이 커지는 중국의 지리 경제 및 지리 정치적 공격성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일본, 호주와 협력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인도는 인도 태평양 패권 균형을 재형성하기 위해 중국의 행동을 억제하는 것은 물론 중국과 직접 참여하는 이중 접근법을 추구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중요한 인도 태평양 요충지에 걸쳐있기 때문에 때문에 미국과 중국 모두에 전략적으로 중요하다. 인도네시아는 중국에 대한 호감을 전혀 보이지 않고 중국 투자를 확보했다. 중국의 공세에 대응하는 데 막대한 기여를 할 수 있는 역량과 신뢰를 갖춘 지역 내 극소수 국가 중 하나로 인도네시아는 이제

2018년 5월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운데)와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AFP/GETTY IMAGES

돌이킬 수 없는 지정학적 변화로 인해 인도 태평양은 세계 패권 정치의 주요한 지역이 됐다.

인도를 신뢰할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다.

모디 총리는 조코위 대통령과 협정을 체결하고 인도가 수마트라 북부 사방 항구를 사용하여 인구 해군의 말라카 해협 전진 주둔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했다. 중국은 이 협정의 의미를 모르고 있다. 모디 총리가 인도네시아를 방문하기 하루 전 중국 국영 *글로벌 타임스* 신문은 "인도가 전략적인 사방섬을 군사적을 활용하려 하면" 중국이 "못 본 체하지 않을 것이다"며 "부당하게 중국과 전략적인 경쟁에 빠져 피해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인도에 경고했다.

돌이킬 수 없는 지정학적 변화로 인해 인도 태평양은 세계 패권 정치의 주요한 지역이 됐다. 양국 관계가 포괄적인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격상된 것처럼 인도가 새롭게 인도네시아와 의견을 같이하는 것은 양국이 더욱 긴밀히 협조하여 인도 태평양 개념을 더욱 발전시키는 기반이 될 수 있다. 인도와 인도네시아는 해양 영역에서 경제 및 안보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바다의 지속 가능한 사용과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같은 과제를 안고 있는 가까운 이웃이라는 인식을 새롭게 하면서 양국은 인도 태평양의 지역 안보를 유지하는 데 더욱 기여해야 한다. 모디 총리와 조코위 대통령은 해양 협력을 제도화하여 인도 태평양을 진정으로 자유롭고, 개방적이고, 포용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

비나이 카우라는 국제 정세 및 안보학 조교수이며 인도 라자스탄 사다르 파텔 경찰, 안보, 형사 행정학 대학교 평화 및 분쟁 연구소 코디네이터다. 본 기사는 동서센터가 발행하는 아시아 퍼시픽 불리틴 437호에 처음 게재됐다. 여기에 표현된 견해는 저자의 견해일 뿐 동서센터나 저자가 소속된 모든 조직의 정책이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본 기사는 *포럼* 형식에 맞게 편집됐다.

사자 보존 성공

남아프리카공화국

연보호주의자들이 세계 최초로 인공 수정을 통해 잉태되어 태어난 사자 새끼들을 환영했다. 연구진들에 따르면 사자 새끼들은 남아프리카공화국 노스 웨스트주 프리토리아에서 북서쪽으로 80 킬로미터 떨어진 우쿠툴라 보존 센터에서 태어났다.

프리토리아대학교 포유류연구소 소장 안드레 간스윈트(Andre Ganswindt)는 사자 암수 각각 한 마리가 자연 서식지에서 잉태되어 2018년 8월 25일 태어났다고 말했다.

이번 성과는 18개월 동안 집중 실험을 통해 달성됐다. 연구진들은 건강한 수사자로부터 정자를 채취한 후 성공할 수 있을 때까지 암사자의 호르몬 레벨을 모니터했다. 이후 비수술 기법으로 암사자를 인공 수정시켰다.

그는 이번 성공을 재현할 수 있다며 멸종 위기에 처한 다른 대형 고양잇과 동물을 구하는 데 과학자들이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아프리카 사자를 취약 종으로 지정한 국제자연보전연맹에 따르면 사자는 26개 아프리카 국가에서 멸종했으며 야생 상태의 개체수도 지난 20년 동안 43퍼센트 급감하여 약 2만 마리밖에 남지 않았다.

간스윈트 소장은 "무언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자는 멸종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사자를 이동시켜 번식시키는 것보다 북미와 유럽에서 사육 상태의 코끼리에 적용하는 것처럼 새로운 기법으로 정자를 생식력이 있는 암사자에 주입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과학자 임케 루더스(Imke Lueders)는 "해외 동물원이 아닌 자연 서식지에서 인공 수정을 통해 사자 새끼를 처음 탄생시켰다. 이것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중요한 성과다"고 말했다.

그는 "보조 생식 기술은 또 다른 보존 방법이다. 물론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 멸종 위기종을 보호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다"고 말했다. AFP 통신

영국

2018년 11월 스위스 제네바 유엔 건물 근처에서 한 남자가 중국에 시위 중이다.

인권 TV 채널 출범

2019년 1월 중순 세계 최초 인권 전문 TV 채널이 런던에서 출범하며 주류 언론이 놓치고 있는 숨겨진 이야기를 전하겠다고 약속했다.

국제인권관측소는 웹 기반 채널을 통해 유럽, 남미, 중동의 20여 개 나라에 인권 문제를 보도하겠다고 발표했다.

공식 출범식에서 국제인권관측소 소장 발레리 피이(Valerie Peay)는 톰슨 로이터 재단에 "세계에 목소리를 전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 그리고 상황은 점점 악화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주제는 난민, 언론의 자유, 언론인 감금, 극단주의, 여성 인권, 세계 무국적자의 고통을 포함할 것이다.

피이 소장은 "24시간 뉴스가 보도되는 세계에 살고 있지만 종종 놓치는 이야기가 있다. 인권이 경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제작 중인 프로그램은 천안문 민주주의 시위 30년 후 중국과 여성에 대한 기술의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살펴볼 것이다.

출범식에서 BBC 사회자 겸 기자 얄다 하킴(Yalda Hakim)은 주의 지속 시간이 축소하고 인상적인 어구가 지배하는 세계에서 "목소리가 없는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주고 인권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것"이 채널의 목표라고 말했다.

방송은 netgem.tv 양방향 플랫폼에서 시청할 수 있으며 곧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국제인권관측소는 프로그램을 영어로 제작하나 앞으로 페르시아어, 터키어, 아랍어, 러시아어를 비롯한 다른 언어로도 방송하게 되길 바라고 있다. 로이터

미생물학자 윤국영 박사가 독감 균주가 복제하는 것을 막는 화학물질을 실험한 팀을 이끌었다. AP 통신

삽화: 화학물질 **AM580**이 중동호흡기증후군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에서 복제를 억제했다.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

홍콩 과학자가 *항바이러스제에* 돌파구를 마련했다.

홍콩 과학자들이 감영성 질환과 싸움에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치명적인 바이러스성 질환의 확산을 늦출 수 있는 화학물질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2019년 1월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 저널에 발표한 연구에서 홍콩대학교의 한 연구팀은 새로 발견한 화학물질을 "다양한 바이러스의 수명 주기를 강력히 방해한다"고 설명했다.

2019년 1월 과학자들은 이 화학물질을 다양한 감염성 질환에 대해 광범위 항바이러스제로 사용할 수 있으며 아직 발생하지 않은 바이러스에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수십 년 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과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같이 때로 치명적인 조류 독감의 확산으로 백신보다 더 빨리 작용할 수 있는 새로운 약물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광범위 항바이러스제는 다양한 병원체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성배로 간주된다. 반면 백신은 일반적으로 하나의 균에만 효과가 있고 백신이 생산됐을 때 바이러스는 이미 돌연변이를 일으켰을 수 있다.

홍콩 팀은 2년 동안 쥐에 화학물질 AM580을 시험하고 SARS와 MERS를 일으킬 수 있는 바이러스는 물론 H1N1, H5N1, H7N9을 비롯한 다양한 독감 바이러스가 복제하지 못하게 막았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화학물질은 또한 모기를 통해 감염되는 지카 바이러스와 수족구병을 일으키는 장내바이러스 71의 복제도 막았다.

팀을 이끈 윤국영 미생물학 박사는 "이것이 바로 광범위 항바이러스제다. 즉 다양한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다"며 "전염병 초기 통제 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내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직접 노리지 않은 약품을 찾는 바이러스 학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바이러스 학자들은 바이러스가 숙주 세포에서 복제하는 데 지질로 알려진 중요한 지방산을 사용하는 방법을 교란하는 화학물질을 찾고 있다.

지질 흡수를 막아 바이러스를 굶겨 죽이는 연구를 발표한 텍사캐나 텍사스 A&M 대학교 바이러스 전문가 벤자민 뉴만(Benjamin Neuman)은 "이 연구는 과학의 진보다. 흥미진진한 새로운 방향으로 가는 초기 단계다"고 말했다.

그는 "바이러스는 숙주로부터 빼앗은 영양소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최근 수많은 연구에 따르면 감염된 세포에서 지속적인 지질 흐름을 교란시키면 다양한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고 말했다. AFP 통신

파충류 카페에서 공포에 직면하라

알비노 비단뱀, 오렌지 옥수수뱀 또는 비늘, 수염이 달린 이구아나를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째아 라티(Chea Raty)는 프놈펜 최초의 파충류 테마 카페에서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유일한 치료법이라고 말한다.

째아 라티는 캄보디아 수도에서 이미 인기 있는 고양이 카페로 시작하여 피부를 기어 다니는 파충류와 뱀으로 카페를 새롭게 단장하고 파충류 혐오자들에게 오해일 뿐이라고 설득하고 있다.

고객들이 라떼를 마시며 파충류와 어울리고 있는 가운데 32세의 한 고객은 이구아나의 비늘 목 피부를 쓰다듬으며 "나처럼 좋아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카페 벽에는 다양한 길이와 색깔의 뱀이 담긴 유리 탱크에 조명이 켜져 있고 코너에는 밝은 마코 앵무새가 소리를 내고 있다. 일부 고객들은 우리를 망설이며 쳐다본다. 파충류를 안아보는 대담한 고객도 있다.

입장은 무료이며 고객들은 커피를 주문하고 파충류 친구를 소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고객을 위한 아이스티는 화려한 색깔의 볼비단구렁이가 몸을 감을 수 있는 멋진 물체가 된다.

고객 이 나빔(Y Navim)은 처음에는 먹이를 졸라 죽이는 노랑 옥수수뱀을 무서워했다. 하지만 그가 커피를 마시자 뱀이 손바닥 위에 놓였다. 22세의 그는 "이곳은 매우 독특한 카페다"며 "처음 보는 파충류도 있다. 아름다우면서도 무섭다"고 말했다.

AFP 통신

베스파 마니아들의 극진한 베스파 사랑

매년 청소년과 노인부터 기술자와 학생까지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이스트 자바에 모여 이탈리아의 상징적인 베스파 스쿠터에 대한 사랑을 기념한다. 어떤 이들에게 이것은 극단적인 사랑이다. 여기서 베스파는 우울한 할리우드 미래 영화에 등장한 금속 몬스터 오토바이처럼 꾸며진다.

마니아 수백 명이 케디리에서 열리는 축제에 참가하여 복원된 빈티지 베스파부터 가짜 기관총, 수십 개의 추가 타이어나 후드 장식품으로 만든 섬뜩한 장난감이 장착된 매드 맥스 스타일 탱크까지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축제 경쟁 부문에 참가하려면 모든 개조 차량은 베스파 엔진이 장착돼야 하며 대부분의 경쟁자들은 베스파의 상징적인 곡선 전면을 유지하려 한다. 기타 장식은 소유주와 예산에 따라 달라진다. 폐차장에서 찾은 고철이나 중고 재료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막대한 돈을 쓰는 사람들도 있다.

1990년대부터 베스파를 개조해온 43세 할아버지 페데드(Peded)는 베스파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술라웨시섬 토라자 부족 땅에서 가져온 거대한 물소 뿔로 베스파를 꾸민 페데드는 "베스파를 극도로 꾸미는 것을 좋아하지만 쓰레기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올해로 3년 차를 맞이하는 이 3일간의 축제는 인도네시아 전국에서 열리는 여러 축제 중 하나다. 대표적인 이벤트에는 가장 아름다운 차량 선정 콘테스트와 고속 오토바이를 위한 더트 트랙 경주가 있다. 로이터

한쿠앙

2018년 6월 7일 타이완 군인들이 타이완 중부 타이중 칭추안강 공군 기지에서 열린 한쿠앙 훈련에 참가하고 있다. 타이완은 연례 최대 훈련을 실시하여 중국의 침략을 시뮬레이션했다. 중국이 타이완에 대한 군사 및 외교 압박을 강화하여 긴장을 고조시키는 가운데 차이잉원(**Tsai Ing-wen**) 타이완 총통이 훈련을 주재했다. 타이완은 인민해방군 공군이 타이완 근처에서 벌인 일련의 훈련을 위협이라고 비난했었다. 로이터에 따르면 차이 총통은 타이중에서 "우리 군의 전투력이 국가 안보를 보장한다. 사회 번영의 기반이자 민주주의와 자유의 가치를 지키는 원동력이다"고 말했다.

사진: 샘 예(**SAM YEH**) | AFP/Getty Images

시의적절.
통찰력.
온라인.

www.ipdefenseforum.com

매일
새로운기사!

무료 매거진 구독

*인도 태평양 디펜스 포럼*은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 관계자들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군사 매거진입니다.

매거진 무료 구독:

www.ipdefenseforum.com/subscribe

주소: *IPD FORUM* Program Manager
HQ USINDOPACOM, Box 64013
Camp H.M. Smith, HI
96861-4013 USA

다음 사항을 기입해 주십시오:

- 이름
- 직업
- 직책 또는 계급
- 우편 주소
- 이메일

페이스북과 트위터에서
저희와 만나보십시오.